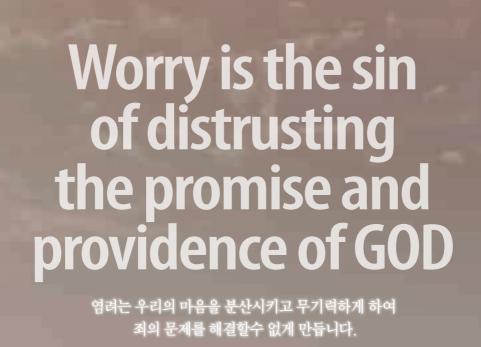


사랑하는 _____ 님께 드립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HOSCINNA







Dear Lord 주님,

From November 2022, 11월에는

Time 시간

Place 장소

에서

sitting before you 주님 앞에 앉아 eating your Word 주님의 말씀을 읽고 praying to you, 주님께 아뢰며 will have a fellowship with you.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Name 이름

Could you not watch with me one hour?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one hour)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 26:40)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 Family BibleTime
 "기쁨의 언덕으로"를 통해 온가족이 매일 성경 읽는 시간(Family BibleTime)을 가지세요. 자녀 제자화는 부모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 ① 찬송가 묵상을 시작하기 전 오늘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가의 고백은 묵상을 위한 기도와 같습니다.
- ② 묵상본문 오늘 묵상할 성경구절의 범위
- ③ 통독본문3년 1독을을 위한오늘 통독 범위
- 4 여는기도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합니다.



〈내지샘플〉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택잡기 본문의 구조와 주제를 자세히 소개하여 묵상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 (3) 영한 대역(ESV/개역개정) 영어와 한글을 함께 읽음으로 본문의 뜻을 더욱 명확히 이해합니다.
- ② 말씀 속으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질문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주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 ③ **묵상 중에 만난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적고 그 의미를 깊히 묵상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 ① 한 말씀 One Word 우리 영혼이 생명(life)을 누리고 예수님처럼 한 구절의 말씀의 검(sword)을 사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 2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결단을 갖습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미 전역에 흩어져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3

色な田はいた

BRIDGERMAN

ARREST AND ALL PROPERTY AND ADDRESS OF THE THE THE

지원 사람이 이 및 현대가 2015년 우리 사이를 변경하는 수를 보고 있었다. 기구가 보고 있으로 중구하고, 사람이 및 현실 시간에서 하 보고 있었다. 기계에 전혀 사람이 하는 기계에 보고 있는 때에 가는 다 지기 보는 나이디지를 가득하는 지수에는 이번을 받던 나를이 가 이에 보면 없었다는 경기를 가득하는 지수에는 이번을 받던 나를이 가 이에 보면 없었다는 경기를 가득하는 지수에는 이번을 받던 보는 옷 없다는데 기계에 보면 있다면 되어 있다.

Which blue I have been a new hearth security and an engineering and a few an

These by the time and the first dependence which image is 2000 compared to the first depend for one one of the first as the regard to the first dependence and these first dependence of the product of t

Supply Word by Supply S

〈내지샘플〉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 소늘의 감사 감사는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5) Journaling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합니다.
-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자녀들의 매일 말씀묵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스티커를 활용해보세요
- 7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 Youtube 바로가기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Facebook / Youtube
 공식계정으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일독/말씀묵상

혼자서도문제없다

▲ 시간을 정해 놓고 읽기

매일 아침 혹은 저녁 등 혼자 조용히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을 고정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정기적인 시간에 주님 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찬송, 기도

Pleasant Hill에는 그날 부를 찬송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찬송을 통해 마음 문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잠시 기 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킵니다.

어떻게 읽을까?

성경을 읽으며, 단락이 끝날 때 그 단락의 내용을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키워드를 기록해 보세요. 핵심구절이나,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밑줄도 그어 보십시오. 각구절에 대한 자신만의 기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구절에는 느낌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에는 물음표,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전구 표시 등. 본문을 이렇게 한 번 읽고. 표시해 놓은 구절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Journaling, 예수님과 함께

4 일기(Diary)를 쓸 때 주어는 나(I)입니다. 하지만 저널링(Journaling)의 주어는 예수님(Jesus)입니다. 나의 일상을 반성하고 기록하는 일기도 좋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는 우리 여정을 기록하는 저널링은 더 좋습니다.

마무리는 이렇게!

Family Pleasant Hill

기존의 가정예배가 부담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설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 없이 말씀을 함께 읽고, 각자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Family Pleasant Hill"이 가능합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를 제자화해야합니다!

● 언제가좋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세 번, 매 일도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저녁 시간 이후, 혹은 아침 식사 전도 좋습니다. 시간은 20-30분 이내가 좋습니다.

2 모임 장소 Tip! 가족이 다 함께 둘러앉을 수 있는 편안한 장소이면서 어떤 미디어에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가 좋습니다. Family Pleasant Hill 전에는 절대 TV를 켜지 않도록 합니다.

3 인도자와 대표 기도자 정하기 인도는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결정한 원칙을 따라 순서를 정합니다. 아빠〉엄마〉첫째〉둘째, 혹은 집에서 키가 큰 순서를 따라, 노래를 잘하는 순서를 따라 등. 마무리 기도는 인도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하거나, 사회의 반대 순서, 혹은 모두가 돌아가며 마디기도를 해봅니다.

- * 소그룹교재를 가정예배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페이지에 묵상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

2022 November

11

기쁨의 <mark>언덕으로</mark>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달의주요일정

SUNDAY	MO	INDAY	TUESDAY		
			1	여호수아 Joshua 1장 □	
6	7	여호수아 Joshua 6장 □	8	여호수아 Joshua 7장 □	
13	14	여호수아 Joshua 12장 □	15	여호수아 Joshua 13장 □	
20	21	여호수아 Joshua 19장 □	22	여호수아 Joshua 20장 □	
27	28	요엘 Joel 1장 □	29	요엘 Joel 2장 ロ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2	여호수아 Joshua 2장 □	3	여호수아 Joshua 3장 □	4	여호수아 Joshua 4장 □	5	여호수아 Joshua 5장 □
9	여호수아 Joshua 8장 □	10	여호수아 Joshua 9장 □	11	여호수아 Joshua 10장 □	12	여호수아 Joshua 11장 □
16	여호수아 Joshua 14장 □	17	여호수아 Joshua 15장 □	18	여호수아 Joshua 16-17장 □	19	여호수아 Joshua 18장 □
23	여호수아 Joshua 21장 □	24	여호수아 Joshua 22장 □	25	여호수아 Joshua 23장 □	26	여호수아 Joshua 24장 □
30	요엘 Joel 3장 ロ						
				S M T 2 3 4 9 10 11 16 17 18	September W T F S 1 1 5 6 7 8 8 1 12 13 14 15 8 19 20 21 22 6 26 27 28 29	S M T 4 5 6 11 12 13 18 19 20	1 2 3 7 8 9 10 14 15 16 17 21 22 23 24



Humility

앤드류 머레이(Andrew Murray)

Why_왜읽어야할까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길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의 겸손을 구하라. 그분 안에 있는 깊은 겸손의 회복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What 어떤보배인가

작 소개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오랜 고민과 묵상이 만들어낸 고전으로 겸손에 대해 가르쳐 주는 것은 물론, 그리스도에게 겸손을 배우도록 한다. 아울러 겸손이 우리 삶과 신앙의 전체 영역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고 있다. 겸손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발견할수 있을 것이다.

저자소개 앤드류머레이(Andrew Murray)

평생을 남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앤드류 머레이. 그는 240여 편의 주옥같은 글들을 남겼는데,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생활과 기도에 관한 것이다. 그가쓴 저서의 특징은 신앙의 핵심을 찾아서 일목요연하게 해설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모든 저서는 머레이 자신의 경건과 기도 생활 가운데에 직접 깨닫고 체험한 것을 담고 있기에 더욱 놀라운 깊이가 있으며, 동시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결되어 있다.

Chapter 3 예수님의 삶속에 나타난 겸손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겸손의 근원과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겸손이 깊이가 없고 연약한 이유는 우리가 진정한 겸손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도 추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온유했으며 겸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진정한 겸손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죄를 죽임으로써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이 당신과 동떨어져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절대 예수 남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깨달음으로 인해 당신은 주안에서 진정한 겸손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서 겸손의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 매 순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지식의 거룩한 비밀(the holy secret of the knowledge of the nature of God)을 구해야 합니다. 모든 자연과 피조물 특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증거자가 되는 이 비밀이란 피조물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의 지혜, 권능 그리고 선하심을 나타내주는 그릇(vessel)이며 통로(channel)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 성장, 믿음 그리고 진정한 예배를 이끄는 원동력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으며 우리는 가장 겸손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겸손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생각나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전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하듯이 겸손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하

나님의 종으로 여기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인간들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인간의 종인 것도 당신 스스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당신의 영광을 구하거나 당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구원의 본질(essence of His redemption), 하나님 아들의 삶에 내려진 복(blessedness of the life of the Son of God)이며 단 하나의 하나 님과의 진정한 관계(only true relationship to Father)로 여기고 우리가 예수 님의 일부분(any part with Him)이 되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배워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겸손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비통해 하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첫째되고 가장 중요한 흔적(the first and the chief of the marks of the Christ)인 겸손을 얻기 위해 우리의 연약한 신앙생활을 버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써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들, 당신은 매일의 삶에서 겸손이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여러분의 친구들 그리고 세상에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껏 알지도 못했고 맛보지도 못했던 하늘의 축복인 겸손을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에게 선물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14

기쁨의언덕으로 EOSan C

이야기로 알아보는 성경

여호수아 Joshua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 '약속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 구체적으로 약속하셨고(창 17:8; 출 3:8)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러 그 약속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과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이 터를 잡고 살던 땅에 들어가야 하니 땅을 얻기 위한 처절한 전투도 감행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에 참여하나 그 전투를 이끄시고 직접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 이셨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은 말로써만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전장의 선두에 서 싸움을 진두지휘하시며 약속을 이루시고 적극적으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의 구조와 내용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1:1)에서부터 여호수아의 죽음(24:29)까지의 시간 적 간격을 다루고 있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뉠수 있습니다.

- 1) 요단강 서편 지역을 정복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1-12장
- 2) 정복한 땅의 분배에 관한 내용이 있는 13-22장
- 3) 여호수아의 고별사와 신앙 촉구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가 기록된 23-24장

1-12장은 가나안 땅 정복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이련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10-11장은 가나안 정복 당시의 '전쟁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22장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지역의 목록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 지파들에게 이미 분배된 지역에 대한 목록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13장). 이어서 각 지파에 속한 지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14-19장). 요단강 서편과 동편에 각각 세 성읍들이 도피성으로 지정되는 내용이 20장에 기록되어 있고, 21장에는 48개 성읍이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영토 분배가 모두 끝이 나고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은(르우벤, 갓, 므낫세 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받습니다(22장). 23-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23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고, 24장은 세겜에서의 연설로,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지상명령입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여호수아의 죽음과 매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서에 담겨 있는 내용들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신학적인 주제는 가나안 정복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며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역사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 내십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야 했지만,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땅의 정복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은 잔인하고 난폭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복할 때에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가축 등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불순종

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잔인한 명령을 내리셨을까를 깊이 묵상해봐야합니다.

당시 가나안 백성들은 아주 심각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 성적으로 타락했고 음란했습니다. 유목 생활을 하던 이 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하여 농경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 이스라엘은 가나안 농경문화의 신인 바알, 아세라 등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인들이 하던 방식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을 일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거민들을 그 땅에서 완전히 진멸하지 않은 결과 그들은 타락을 길을 걷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기 위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죄와 악과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죄와 악을 진멸해야 합니다. 진멸하지 않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수 없습니다. 죄와 악이 티끌만큼이라도 남아 있으면 그 끝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을지키시는 분이심을 가르쳐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했을 때 지나치거나 아닌 것 같다고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불순종의 길은 타락의 길입니다. 타락은 멸망으로 이끌고 그 끝은 죽음이며 지옥입니다.

이야기로 알아보는 성경

요엘 Joel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요엘에 대해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브두엘"이라는(1:1) 것 외에는 요엘서에서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단지 요엘서 전체를 통해 그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였다는 것과 요엘서에 나오는 말들이 다른 선지서들과 공통점을 가진다는 점과 요엘이 이 선지서들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요엘서가 이들보다 후기에 쓰여졌다는 것을 추측할 뿐입니다.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과 그에 따른 가뭄이 동기가 되어,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에 대비하여 백성을 회개에 초대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이방인의 침입 가운데서 구원을 약속하고, 아울러 구원의 확증으로 이방민족의 심판을 약속하는 책입니다.

요엘서의 구조

요엘서는 대략적으로 서로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는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이 두 부분은 서로 대응되는 비슷한 길이를 갖는데 1장 2절에서 2장 17절과 2장 18절에서 3장 21절의 두 부분입니다. 첫째 부분에서는 메뚜기 재앙과 가뭄으로 인한 백성의 참회와 여호와의 날을 서술하고 있고, 둘째 부분에서는 그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과 미래의 구원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분의 구성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여호와 날(1:15)의 전조로 이해되는 메뚜기 재앙(1:4, 6~7)과 그로 인한 가뭄의 재앙(1:9~12) 때문에 백성에게 탄식할 것을 요구하고(1:5, 8, 13) 실제로 백성의 탄식 (1:15~18)과 기도(1:19~20)가 이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2장 1~11절에서는 메뚜기와 유사한 (2:3~8) 군대의 침입과 연관된 '여호와의 날'이 선포되고, 2장 12~14절에서는 여호와의 날의 재앙으로 인해 참회의 요구가 나옵니다. 이 참회의 요구는 2장 15~16절에서 다시 한번 참회의 제의에 대한 요구와 기도(2:17)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각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백성들의 기도로 끝나는 구조를 볼수 있습니다.

이와 연관하여 둘째 부분인 2장 18-27절에서는 이 백성의 참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장 28-32절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 (Spirit)을 부어 줄 것과 여호와의 날의 무서운 재앙에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타나며, 마지막으로 3장 1-17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방민족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확증해줍니다. 그리고 이 책은 3장 18-21절에서 애굽과 에돔은 황무하게 되는 반면에, 유다 땅은 새로이 풍요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구원의 내용을 요약하며 마칩니다.

신학적주제 - '여호와의날'과 하나님의 구원

요엘서에 나타나는 신학적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한 가지 테마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원래 여호와의 날은 '교만하고 자고하고 거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날이었습니다(사 2:12-17). 다시 말해 이날은 하나님의 대적들, 곧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심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날로 고대했던 여호와의 날이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들(곧 이스라엘의 원수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에게도 임했습니다. 이제부터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이 된 것입니다.

2장 2절에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는데, 그들은 막강하고 잔인한 종말론적인 군대로서, 아무도 그들에게서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무서운 종말론적인 군대를 여

호와께서 직접 앞장서서 이끌고 계십니다(2:11).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 엘에 대한 최종적인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선지자는 다시 한 번 시온을 향해 경고의 나팔을 울리고 있습니다(2:1). 2장 1절에 선지자가 다가오는 원수들에 대한 경고의 나팔을 울리며, 2장 15절에서도 새롭게 경고의 나팔을 부는데, 그 목적은 속히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라는 요구입니다. 이 선지자의 금식 선포에 대한 요구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2:12)"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느냐, 아니면 여호와의 날에 멸망하느냐 하는 그들의 운명은 이스라엘이 결심하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금식을 정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간구하는가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요엘서의 재앙과 구원이라는 이중 구조를 통해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은 하나 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 원하시려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기를 고대하시는 분이십니다(2:13).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은 백성들이 잘못을 회개하 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려는 선한 의도이신 것입니다. 요엘서뿐 아니라 많은 선지서들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다가 곧이어 다시 구원을 약속하시는 것은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백성들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받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2:32).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없이.

^{রুরপ্র}•Tue

2022 November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Go to the Land that I'm Going to Give to You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신 후, 약속된 그 땅으로 들어가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 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서 율법을 묵상하고 지키라 하십니다.

♬ 새347장(통382장) 허락하신 새 땅에

_{묵상}∙여호수아 1:1−9

통독 · 여호수아 1장

- 1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 자 뉴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2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 3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 4곧 광야와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혯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 5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 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 6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 7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 8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 9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 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Reading Insight

Upon choosing Joshua as the successor to Moses, God commanded him to enter the Promised Land. God then encouraged Joshua so that he could fulfill his responsibilities and commanded him to meditate upon and keep the laws.

☐ Hymn347 We Are Bound for Canaan Land

Meditation • Joshua 1:1-9

Reading Plan · Joshua 1

- ¹ After the death of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the LORD said to Joshua the son of Nun, Moses' assistant,
- ² "Moses my servant is dead. Now therefore arise, go over this Jordan, you and all this people, into the land that I am giving to them, to the people of Israel.
- ³ Every place that the sole of your foot will tread upon I have given to you, just as I promised to Moses.
- ⁴ From the wilderness and this Lebanon as far as the great river, the river Euphrates, all the land of the Hittites to the Great Sea toward the going down of the sun shall be your territory.
- ⁵ No man shall be able to stand before you all the days of your life. Just as I was with Moses, so I will be with you. I will not leave you or forsake you.
- ⁶ Be strong and courageous, for you shall cause this people to inherit the land that I swore to their fathers to give them.
- 7 Only be strong and very courageous, being careful to do according to all the law that Moses my servant commanded you. Do not turn from it to the right hand or to the left, that you may have good success wherever you go.
- 8 This Book of the Law shall not depart from your mouth, but you shall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so that you may be careful to do according to all that is written in it. For then you will make your way prosperous, and then you will have good success.
- 9 Have I not commanded you?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frightened, and do not be dismayed, for the LORD your God is with you wherever you go."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은 무엇이었 습니까? (7-9절)

What was God's solution for Joshua who was terrified? (1:7–9)

여러분은 가정, 교회, 직장 등에서 어떤 영적 리더십을 갖고 계십니까? What kind of spiritual leadership do you have within your family, church and workplace?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의마누엘여하기기교하 시산바(CA)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 신상만(CA) 좋은연합감리교회, 김두식(CA) 목회자를 위한 기도

말씀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

Word Engenders Life and Life Engenders Worship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 어떤 누구도 대신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자리가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거쳐 모세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이어져온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했던 여호수아였지만, 사실 그가 가진 두려움은 외부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 백성을 잘 이끌 수 있을까?'는 걱정과 근심 말입니다. 그리고 그 런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부족과의 전쟁에 임하는 그 상황을 두고 하신 말씀이기도 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나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아야 하고, 가나안 땅은 내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이를 은혜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Upon the death of the great leader Moses, no one was able to fill his shoes and the position was given to Joshua. His first task was "to enter the Promised Land." That land was the promise of God that began with Abraham and continued with Isaac, Jacob, and Moses and remained unchanged. Though Joshua already experienced the work of God and the grace of God through Moses, Joshua's fear was internal rather than external. "Can I really lead these people well?" was his concern and worry. God's response to him was, "Be strong and courageous, and do not be terrified." This message was intended to prepare the Israelites for war against seven tribes in Canaan, but it also was the basic Word of God demanding obedience to and stronger trust in God.

"Obey all the law my servant Moses gave you; do not turn from it to the right or to the left." We must know that God is the one who placed us here. We must know that the war belongs to God, and Canaan is not up to us to take but is given by God. The world is full of people who have forgotten the grace of God but we must know that all things come from God. I hope that we accept them with thanksgiving and confess that all things are given through the grace of Go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П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৪৪০·Wed

2022 November

라합과 두 명의 정탐꾼

Rahab and Two Spie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여리고에 잠입한 정탐꾼들은 위기 중에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돌아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절망의 상황에서 구원해 달라는 라합의 간구에 정탐꾼들은 라합의 식구를 살릴 것이라 약속합니다.

♬ 새217장(통362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묵상·**여호수아 2:8-14**

통독 · 여호수아 2장

- 8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 9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 10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들었음이니라
- 11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 12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 13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 14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 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Reading Insight ·····

Two spies who entered Jericho faced danger but were helped by the prostitute Rahab and safely returned to their camp. Rahab implored them to save her family out of worldly despair and the spies promised to save her family.

Meditation • Joshua 2:8-14

Reading Plan · Joshua 2

- 8 Before the men lay down, she came up to them on the roof
- ⁹ and said to the men, "I know that the LORD has given you the land, and that the fear of you has fallen upon us, and that all the inhabitants of the land melt away before you.
- 10 For we have heard how the LORD dried up the water of the Red Sea before you when you came out of Egypt, and what you did to the two kings of the Amorites who were beyond the Jordan, to Sihon and Og, whom you devoted to destruction.
- 11 And as soon as we heard it, our hearts melted, and there was no spirit left in any man because of you, for the LORD your God, he is God in the heavens above and on the earth beneath
- ¹² Now then, please swear to me by the LORD that, as I have dealt kindly with you, you also will deal kindly with my father's house, and give me a sure sign
- 13 that you will save alive my father and mother, my brothers and sisters, and all who belong to them, and deliver our lives from death."
- 14 And the men said to her, "Our life for yours even to death! If you do not tell this business of ours, then when the LORD gives us the land we will deal kindly and faithfully with you."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정탐꾼들이 라합의 이야기를 온전 히 전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 까요? (6:17)

What was the result after the spies shared the entire story of Rahab? (6:17)

당신의 삶 속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 하셨습니까?

Have you ever experienced the work of God due to the confession of faith in your life?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주사랑연합감리교회, 김태호(CA) 카르디아연합감리교회, 김범수(C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믿음의 고백이 한 걸음을 내딛게 합니다

The Confession of Faith Enabled the First Step Forward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기생 라합을 만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특별한 여인이 되었는데, 우리에게도 라합은 특별한 여인입니다. 왜 특별한지, 먼저 그녀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아노라. ……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또 하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5절)"라고 합니다. 즉,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할 머니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가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여 년 전 '가데스 바네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40일 동안 정탐을 했음에도 대다수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함으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단 두 명의 정탐꾼은 3일 동안 숨어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 보고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고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녹더이다." 이 믿음의 고백 후에야 하나님은 드디어 이스라엘을 한 발자국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가나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Joshua dispatched two spies to Jericho where they met the prostitute Rahab and received great help from her. Hence, Rahab was a very special woman to the spies, but Rahab is also a special woman to us. Why special? Let's look at her confessions. "I know that the LORD has given this land to you... When we heard of it, our hearts melted... for the LORD your God is God in heaven above and on the earth below." One more example. The genealogy of Jesus is mentioned in Matthew 1:5, "Salmon the father of Boaz, whose mother was Rahab." In other words, Rahab was the great grandmother of King David. Thus we know, through this woman, how deep and subtle the plan of salvation and the providence of God is.

Do you remember the incident 40 years earlier at Kadesh Barnea? At that time spies spent 40 days in Canaan but most of them did not confess with faith which is why Israel could not enter the Promised Land. But this time only two spies spent 3 days in hiding and returned to report. "I know that the LORD has given this land to you so that all who live in this country are melting in fear because of you." After this confession of faith, God finally allowed the Israelites to take a step forward. Faced with war against the Canaanites, what the Israelites needed was faith. What would happen to Israel that was moving forward with faith?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П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489·Thu

2022 November

백성이 요단을 건너다

People Crossed the Jord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들여놓자 흐르던 강물이 멈추었고 이에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 새432장(통46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둔 바다

묵상·여호수아 3:7-17

통독 여호수아 3장

7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8너는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하라

9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10 또 말하되 살아 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 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 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11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12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명을 택하라

13은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 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14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 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15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멘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작기자

16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17여호와의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Reading Insight «

Joshua arrived at the Jordan River with the people of Israel. As soon as the priests who were carrying the Ark of Covenant set their feet in the Jordan, its waters flowing downstream were cut off and piled up in a heap. Everyone crossed the Jordan on dry ground.

Hymn432 With Christ as My Pilot

Meditation • Joshua 3:7-17

Reading Plan · Joshua 3

- ⁷ The LORD said to Joshua, "Today I will begin to exalt you in the sight of all Israel, that they may know that, as I was with Moses, so I will be with you.
- 8 And as for you, command the priests who bear the ark of the covenant, 'When you come to the brink of the waters of the Jordan, you shall stand still in the Jordan.'"
- **9** And Joshua said to the people of Israel, "Come here and listen to the words of the LORD your God."
- 10 And Joshua said, "Here is how you shall know that the living God is among you and that he will without fail drive out from before you the Canaanites, the Hittites, the Hivites, the Perizzites, the Girgashites, the Amorites, and the Jebusites.
- 11 Behold,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of all the earth is passing over before you into the Jordan.
- 12 Now therefore take twelve men from the tribes of Israel, from each tribe a man.
- 13 And when the soles of the feet of the priests bearing the ark of the LORD, the Lord of all the earth, shall rest in the waters of the Jordan, the waters of the Jordan shall be cut off from flowing, and the waters coming down from above shall stand in one heap."
- 14 So when the people set out from their tents to pass over the Jordan with the priests bearing the ark of the covenant before the people,
- 15 and as soon as those bearing the ark had come as far as the Jordan, and the feet of the priests bearing the ark were dipped in the brink of the water (now the Jordan overflows all its banks throughout the time of harvest),
- **16** the waters coming down from above stood and rose up in a heap very far away, at Adam, the city that is beside Zarethan, and those flowing down toward the Sea of the Arabah, the Salt Sea, were completely cut off. And the people passed over opposite Jericho.
- 17 Now the priests bearing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stood firmly on dry ground in the midst of the Jordan, and all Israel was passing over on dry ground until all the nation finished passing over the Jordan.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17절)

What resulted when the Israelites obeyed God? (3:17)

내 생각이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대로 따라갔 을 때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셨습 니까?

Have you ever had a special experience when you just followed the Word of God in obedience and not your own thoughts or judgment?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상영(CA) 콘트라코스타한인연합감리교회, 김영래(C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Without Faith We Cannot Please God

드디어 그렇게도 고대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가나안 민족들과의 치열한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순간 여호수아라고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마 우리와 같이 두렵고, 떨리고, 걱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지시합니다. 그는 대충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거룩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여호수아는 먼저 성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서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요단강 앞, 하필 그때는 요단강 물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만약 믿음이 없었던 40년 전이라면 여전히 그들은 왜 하필 물 많을 때냐고, 기다리자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물이 많건 적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바로 건널 때입니다.

40년 전, 홍해는 건너기 전에 이미 갈라졌지만, 이번에는 갈라지기 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하나님은 물길을 막으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소서.

Finally, the Israelites took the first step toward the Promised Land Canaan that they so longed for. However, once they crossed the Jordan, fierce fighting against the people of Canaan would begin. At this moment even Joshua was frightened, wasn't he? In that situation we would be fearful, tremble, and be worried and most likely Joshua was too. However, Joshua had faith and trust in God. Joshua ordered his people to prepare to cross the Jordan. He did not do it haphazardly. Because this was holy work to fulfill the promise of God.

For this, Joshua implored his people to be holy. "He placed the Ark of Covenant ahead of everything because this was the war of God. Finally, they reached the Jordan. It was the peak of the rainy season so the river was full of water. If it were 40 years ago when their faith was weaker, they might have complained why cross the Jordan when the river was high and why not wait. But in the eyes of the faithful, whether the river was high or shallow the best time to cross was when God tells them.

40 years ago, the Red Sea was already parted before they crossed. But this time they set their feet in the water before it had parted. According to their faith, God stopped the water flow. "Without faith we cannot please God." Even today please walk with God in faith.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П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3821·Fri 04

2022 November

길갈에 세운 열두 개의 돌

Twelve Stones Set Up at Gilgal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요단강을 건넌 후 하나님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한 사람씩을 뽑아 요 단강 주변에 열두 개의 돌을 세우게 하십니다. 이는 훗날 그들의 후손 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 이었습니다.

♬ 새301장(통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묵상·**여호수아 4:15**-24

통독 여호수아 4장

- 15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16증거궤를 멘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 게 하라 하신지라
- 17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 서 올라오라 하매
- 18여호와의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 19 첫째 달 십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 치매
- **20**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 우고
- 21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 이니이까하거든
- 22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 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 23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 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 과 같았나니
- 24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 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Reading Insight «

After the Israelites crossed the Jordan, God chose a representative from each tribe and commanded them to set up twelve stones along the Jordan River. This was for the descendants of Israel to remember what God did for their fathers and to fear God

☐ Hymn301 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Meditation • Joshua 4:15-24

Reading Plan · Joshua 4

- 15 And the LORD said to Joshua,
- 16 "Command the priests bearing the ark of the testimony to come up out of the Jordan."
- 17 So Joshua commanded the priests, "Come up out of the Jordan."
- **18** And when the priests bearing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came up from the midst of the Jordan, and the soles of the priests' feet were lifted up on dry ground, the waters of the Jordan returned to their place and overflowed all its banks, as before.
- 19 The people came up out of the Jordan on the tenth day of the first month, and they encamped at Gilgal on the east border of Jericho.
- **20** And those twelve stones, which they took out of the Jordan, Joshua set up at Gilgal.
- 21 And he said to the people of Israel, "When your children ask their fathers in times to come, 'What do these stones mean?'
- 22 then you shall let your children know, 'Israel passed over this Jordan on dry ground.'
- 23 For the LORD your God dried up the waters of the Jordan for you until you passed over, as the LORD your God did to the Red Sea, which he dried up for us until we passed over,
- 24 so that all the peoples of the earth may know that the hand of the LORD is mighty, that you may fear the LORD your God forever."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은 무 엇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까? (22-23절)

Why were the twelve stones taken from the Jordan River? (4:22–23)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행하 심에 관한 기억은 무엇입니까? 어 떤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What work of God's was done that you remember? What kind of story do you wish to tell?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크레센타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 김용근(CA) 태평양연합감리교회, 이도원(CA)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한다는 것

Remembering What God Had Done

명절이나 기념일 등이 되어 온 가족이 모이게 되면, 아버지는 언제나우리 세 명의 자녀들에게 시편 1편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꿈과 아버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간증을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자주, 많이 하셨던지 우리 세 남매는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다음 스토리를 다 알고 있을 정도였고, 그래서 매번 "아버지, 그 얘기는 이미 다 아는 얘기에요"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들어봐"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지금은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제가 저의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첨부해서 말이죠. 그것도 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돌을 세우신 이유를 24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 아버지가 세 남매에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 였고, 그 이야기를 다시 제가 저희 세 자녀들에게 전하는 이유입니다.

When our family gathered during holidays or to commemorate special occasions, our father always read Psalm 1 to his three children and shared various things that God had done in his life as well as dreams God revealed to him. Our father told us the same story over and over. Each time when our father began telling the same story we knew what came next and we would tell him each time, "Father we know the story already." But father would only say, "So what, hear it again," and he would continue and finish the story again. What is interesting is that I now tell my own children the same story that our father told us, adding my own comments. As my father did, I repeat the same story again and again to my children.

In today's scripture God explains that He asked the Israelites to set up the stones for them to remember what God had done. "He did this so that all the peoples of the earth might know that the hand of the LORD is powerful and so that you might always fear the LORD your God." (4:24) This was the reason why our father told the same story again and again to his three children and is the reason why I am telling the same story again and again to my children.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ERSI-Sat

2022 November

여호와의 군대 대장

The Commander of the Army of the Lord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은 주변 나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 새353장(통391장) 십자가 군병 되어서

묵상·여호수아 5:1-3, 10-15

통독 여호수아 5장

- 1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 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 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 2 그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 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 하라하시매
- 3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 엘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 10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 쳤고 그 달 십사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 11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 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 12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 13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 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 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 14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하시나이까
- 15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Reading Insight ······

As surrounding nations were trembling in fear when they heard the story of the Israelites crossing the Jordan, the people of Israel observed Passover and performed circumcisions as commanded by God.

☐ Hymn353 Am I a Soldier of the Cross

Meditation • Joshua 5:1-3, 10-15

Reading Plan · Joshua 5

- ¹ As soon as all the kings of the Amorites who were beyond the Jordan to the west, and all the kings of the Canaanites who were by the sea, heard that the LORD had dried up the waters of the Jordan for the people of Israel until they had crossed over, their hearts melted and there was no longer any spirit in them because of the people of Israel.
- ² At that time the LORD said to Joshua, "Make flint knives and circumcise the sons of Israel a second time."
- ³ So Joshua made flint knives and circumcised the sons of Israel at Gibeath-haaraloth
- **10** While the people of Israel were encamped at Gilgal, they kept the Passover on the fourteenth day of the month in the evening on the plains of Jericho.
- ¹¹ And the day after the Passover, on that very day, they ate of the produce of the land, unleavened cakes and parched grain.
- 12 And the manna ceased the day after they ate of the produce of the land. And there was no longer manna for the people of Israel, but they ate of the fruit of the land of Canaan that year.
- 13 When Joshua was by Jericho, he lifted up his eyes and looked, and behold, a man was standing before him with his drawn sword in his hand. And Joshua went to him and said to him, "Are you for us, or for our adversaries?"
- 14 And he said, "No; but I am the commander of the army of the LORD. Now I have come." And Joshua fell on his face to the earth and worshiped and said to him, "What does my lord say to his servant?"
- 15 And the commander of the LORD's army said to Joshua, "Take off your sandals from your feet, for the place where you are standing is holy." And Joshua did so.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 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15절)

What did the Commander of the LORD's army ask Joshua to do? (5:15)

당신은 어디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 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나 의 장벽은 무엇입니까?

To what extent can you obey God? What is the barrier that blocks you from obeying God?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토랜스한인연합감리교회, 강현중(CA) 후레스노한인연합감리교회, 선피터(CA)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아,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Ahl God Had Defended Usl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주변 나라 왕들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분명 지금이 가나안을 정복할 절호의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취하기 전에 무할례자들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행하지 않았던 그 할례를, 하필 지금의 전시상황에서 행하라니요. 게다가 7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소식이 주변나라들에게 전해진다면, 이는 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받는 빌미가 될 것이 뻔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한 겁니다. 아니순종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가 마침 유월절이었는데, 38년 만에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때, 남자들은 다 아파서 누워있었고, 여자들은 절기음식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모습만 보면 주변나라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이상하리만큼 주변나라들은 조용합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비밀이 오늘 본문13-15절을 통해 드러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할렐루야!

When the kings of surrounding nations heard that God had dried up the Jordan River, they were buried in fear and losing their minds. Therefore, this may have been the best opportunity to attack and conquer Canaan. However, the next command of God was "to circumcise again" the uncircumcised before they take the Promised Land. Circumcision was postponed for 38 years but now in the middle of war against Canaan, they are to perform circumcision? Furthermore when the story of the circumcision of 700,000 males spread to surrounding nations, it may trigger an enemy attack. Surprisingly, Joshua and the people of Israel obeyed God's command that was difficult to understand. They showed something beyond obedience.

The time was Passover and it was the first time in 38 years that they were observing Passover festivities. They were facing imminent danger of war at any time, all the male population were incapacitated from circumcision, and women prepared seasonal foods. If surrounding nations detected this, they may not have been idle. But strangely all surrounding nations were quiet. What happened? The secret is revealed in today's scripture Joshua 5:13–15. The Commander of the army of the LORD was protecting the people of Israel. God did have a plan. Hallelujah!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П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06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 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 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
	\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최헌 목사(렉싱턴한인교회-올네이션스연합감리교회)

때때로 미래가 희미하게 보이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조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동안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는데, 모세의 자리를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백만이 넘는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다니…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말씀으로 훈련받은 자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실력과 지도력과 영성과 능력을 갖춘 지도자였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주신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떨렸습니다. 앞으로 넓고 넓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과제였습니다. 큰 고민에빠졌습니다. "정복할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일어나… 건너… 가라…"(수 1:2). 아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이삭과 야곱에게 거듭 약속해 주신 땅, 4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약속의 땅.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그 약속이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다 모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이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서까지 인지, 어디서부터 정복해 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분배하여 정착해야 하는지 다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꽂히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수 1:6). 한 단어, 두 단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니까, 담대하고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차지하게 하리라… 형통하리라!"(수 1:8)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과거에 이미 주셨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 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 가 되리라… 너는…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수 1:4, 6).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수 1:5). 하나님은 옆에 계십니다. 가만히 계시기도 하고, 말씀도 하시고, 만져주시기도 하시며, 필요한 것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수 1:7). 그러기 위해서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시 말해, 자꾸 읽고, QT하고, 암송하고, 말씀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수 1:7-8).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완벽한 작전과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움직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구약에서 땅은 단순히 땅이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펼칠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신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노 마스 파라 크리스토('그리스도를 위해 하나 더')!"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까지…

^{вае} Моп

2022 November

여리고성의 정복

Conquering of Jericho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언약궤와 함께 여리고 성을 돌았고 여리고성은 이들의 함성과 함께 무너지며 함락됩니다. 하지만 라합과 그의 가족은 약속대로 목숨을 건집니다.

♬ 새305장(통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묵상·**여호수아** 6:8−12

통독 여호수아 6장

- 8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매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 9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 하더라
- 10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 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 11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 12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Reading Insight ·····

The people of Israel obeyed the LORD and circled around Jericho with the Ark of the Covenant and Jericho collapsed at the shout of the people. But Rahab and her family were saved as promised.

☐ Hymn305 Amazing Grace

Meditation • Joshua 6:8-12

Reading Plan · Joshua 6

- 8 And just as Joshua had commanded the people, the seven priests bearing the seven trumpets of rams' horns before the LORD went forward, blowing the trumpets, with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following them.
- ⁹ The armed men were walking before the priests who were blowing the trumpets, and the rear guard was walking after the ark, while the trumpets blew continually.
- 10 But Joshua commanded the people, "You shall not shout or make your voice heard, neither shall any word go out of your mouth, until the day I tell you to shout. Then you shall shout."
- 11 So he caused the ark of the LORD to circle the city, going about it once. And they came into the camp and spent the night in the camp.
- 12 Then Joshua rose early in the morning, and the priests took up the ark of the LOR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 때 행 진하는 대열의 모습은 어떠했습니 까? (8-9절)

When the people of Israel were circling around the city of Jericho, what did their marching guard look like? (6:8–9)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결과가 이루 어지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으셨 습니까?

What did you experience while waiting for the result of the grace?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희망교회, 김정민(CA) 히스페리아한인연합감리교회, 최대일(C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사실은 단 한 번이 아니었다

In Fact, It Is Not Just Once

오래된 역사 속에서 크고 넓고 견고했던 여리고성,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이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팔소리와 함성 앞에 무너져버렸습니다. 분명 무너진 것은 한순간이었지만, 과연 단 한 번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인 "Amazing Grace(나 같은 죄인 살리신)"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한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이 찬송이 더 유명해진 것은, 이 찬송가를 만든 John Newton이 오랫동안 노예 상인으로 일했다가 회심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단 한 번의 체험으로 송두리째 바꿔진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의 신앙교육, 그의 삶의 경험, 크고 작은 체험들, 수십 번에 걸친결단과 고백들이 조금씩 조금씩 그를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의 과정이 없었다면, 일주일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었던 성을 일주일 동안 돌았던 과정이 없었다면 이 성은 아무 일도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리고성의 무너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순종하는 삶을 통해 자신들도 모르게 자라 있었던 믿음의 결과요,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믿음을 키워가는 방향인가요? 멀어지는 방향인가요?

Jericho was a large and solid city with a lot of history. It was an invincible city but toppled at the shouts of the people of Israel and the sound of trumpets. Obviously the collapse was instantaneous, but did it happen in one blow? Today's hymn "Amazing Grace" is a beautiful song confessing the grace of Jesus Christ that saved us. This hymn became more famous because the author John Newton converted after being a slave dealer for a long time. But his conversion did not happen at once, uprooting his life. It happened gradually over time through the Christian teachings of his mother, his own life experiences, ups and downs of his own life, and numerous resolutions and confessions of his own.

The story of Jericho in today's scripture is the same. Without the life experiences of the Israelites until they reached the Jordan, and without the process and the efforts to circle the city for a week, nothing would have happened to the city. The collapse of Jericho was the culmination of the obedient life of the people of Israel who trusted the Word of God. The result and gift was that their faith grew without their knowing. Dea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which direction are you heading now? Are you heading in the direction to grow your faith? Or to decrease your faith?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ver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화요일·Tue

2022 November

아간의 범죄

Achan's Si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전리품들을 가져갔고, 이에 노하신 하나 님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지 않으십니다. 여호 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간을 찾아내어 죄의 값을 치르게 합 니다.

♬ 새264장(통198장) 정결하게 하는 샘이

묵상·**여호수아** 7:10-20

통독 . 여호수아 7장

- 10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 11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 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 12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 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 13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 14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 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 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 15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 16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 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 17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 18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 파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 더라
- 19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 20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 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Reading Insight

Achan took some of the Devoted Things, and God became angry and did not allow victory against Ai. Joshua sought out Achan in obedience of the command of God and made him pay for his sin.

Hymn264 When I Saw the Cleansing Fountain

Meditation • Joshua 7:10-20

Reading Plan · Joshua 7

- 10 The LORD said to Joshua, "Get up! Why have you fallen on your face?
- 11 Israel has sinned; they have transgressed my covenant that I commanded them; they have taken some of the devoted things; they have stolen and lied and put them among their own belongings.
- ¹² Therefore the people of Israel cannot stand before their enemies. They turn their backs before their enemies, because they have become devoted for destruction. I will be with you no more, unless you destroy the devoted things from among you.
- 13 Get up! Consecrate the people and say, 'Consecrate yourselves for tomorrow; for thus says the LORD, God of Israel, "There are devoted things in your midst, O Israel. You cannot stand before your enemies until you take away the devoted things from among you."
- 14 In the morning therefore you shall be brought near by your tribes. And the tribe that the LORD takes by lot shall come near by clans. And the clan that the LORD takes shall come near by households. And the household that the LORD takes shall come near man by man.
- 15 And he who is taken with the devoted things shall be burned with fire, he and all that he has, because he has transgressed the covenant of the LORD, and because he has done an outrageous thing in Israel."
- **16** So Joshua rose early in the morning and brought Israel near tribe by tribe, and the tribe of Judah was taken.
- 17 And he brought near the clans of Judah, and the clan of the Zerahites was taken. And he brought near the clan of the Zerahites man by man, and Zabdi was taken.
- 18 And he brought near his household man by man, and Achan the son of Carmi, son of Zabdi, son of Zerah, of the tribe of Judah, was taken.
- 19 Then Joshua said to Achan, "My son, give glory to the LORD God of Israel and give praise to him. And tell me now what you have done; do not hide it from me."
- 20 And Achan answered Joshua, "Truly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God of Israel, and this is what I di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이스라엘이 아이성 싸움에서 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1-12절) Why was Israel routed by Ai? (7:11-12)

지금 내게서 제거해야 할 죄는 무 엇입니까?

What do I need to do to consecrate myself?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그리스도중앙연합감리교회, 주활(CO) 덴버연합감리교회, 이선영(CO) 목회자를 위한 기도

네 안에 있는 악을 먼저 제하라

Consecrate Yourselves First

왜 이스라엘이 행하는 이 전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일까요? 이는 단순히 가나안 민족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악과의 전쟁이요, 죄 악들을 멸하시는 전투입니다. 이미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제서야 이루어진 이유를 우리는 창세기 15장 16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손은 사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 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고 보니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 계시록의 사탄이 추방당하는 것, 초기 공동체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벌을 받은 것도 결국 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가던 이스라엘을 통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아서 무너뜨린 것, 이는 믿음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아간의 죄악이 공동체에 들어오자, 여호수아까지도 영적으로 흔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던 여호수아를 깨우십니다. "네 안에 있는 악을 먼저 제하라."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서도 제하여야 할 악을 제해야 합니다. 그래도 여호수아를 비롯해 기도하던 이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 바뀌지 않으면, 죄악을 제하지 않으면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는 있어도, 약속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제할 것을 제하는 것이 결국 승리하는 길입니다.

How was this battle of Israel fought by God? This battle was not simply against the people of Canaan. This war was against sins and the battle was to despise sins. We can see through Genesis 15:16 the reason why the promise of God with Abraham made 400 years ago is now fulfilled. "In the fourth generation your descendants will come back here, for the sin of the Amorites has not yet reached its full measure." Looking back, we realize that Adam and Eve's fall from the garden of Eden, Satan being expelled in the Book of Revelation, and the sudden death of Ananias and Sapphira in an early faith community – all these were ultimately because of their sins.

Through the path of Israel, we saw surprising guidance from God. Crossing the Jordan, and the collapse of Jericho by circling the city seven times were the grace of God through the faith of Israelites. But when Achan's sin entered the community, even Joshua was shaken spiritually. God woke Joshua who was praying face down on the ground. "Consecrate yourselves first." In ourselves, in our family, and even in our church, we need to consecrate all sins. There were people like Joshua who were praying, and when God saw them praying, He gave Israel an opportunity to restore. Unless we completely change or all sins are cleansed, we may live in God's grace but we may not receive God's promise. We must decide. Even in sickness, even in distress, what we need to cleanse, we must cleanse, because that is the only way to victory.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П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fag·Wed **09**

2022 November

아이성 전투의 승리

Victory at the Battle of Ai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여호수아는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전략 대로 군대를 지휘하여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화목제물 을 드린 후 율법을 낭독합니다.

♬ 새425장(통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묵상·**여호수아 8:1−8**

통독 여호수아 8장

- 1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 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 2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 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 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 3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 려하여용사삼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 4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스스로 준비하라
- 5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 6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 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 하거든
- 7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 8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Reading Insight «

Joshua attacked the city of Ai a second time, this time by following the strategy given by God, and was victorious. He offered burnt offerings to God and read the laws of God.

Hymn425 Thine Own Way, Lord

Meditation • Joshua 8:1-8

Reading Plan · Joshua 8

- ¹ And the LORD said to Joshua, "Do not fear and do not be dismayed. Take all the fighting men with you, and arise, go up to Ai. See, I have given into your hand the king of Ai, and his people, his city, and his land.
- ² And you shall do to Ai and its king as you did to Jericho and its king. Only its spoil and its livestock you shall take as plunder for yourselves. Lay an ambush against the city, behind it."
- ³ So Joshua and all the fighting men arose to go up to Ai. And Joshua chose 30,000 mighty men of valor and sent them out by night.
- ⁴ And he commanded them, "Behold, you shall lie in ambush against the city, behind it. Do not go very far from the city, but all of you remain ready.
- ⁵ And I and all the people who are with me will approach the city. And when they come out against us just as before, we shall flee before them.
- 6 And they will come out after us, until we have drawn them away from the city. For they will say, 'They are fleeing from us, just as before.' So we will flee before them.
- 7 Then you shall rise up from the ambush and seize the city, for the LORD your God will give it into your hand.
- 8 And as soon as you have taken the city, you shall set the city on fire. You shall do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LORD. See, I have commanded you."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4-8절) What was God's strategy to conquer the city of Ai? (8:4-8)

여리고성 때와는 다르게 하나님께 서는 아이성의 전리품을 나눠 가지 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 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Unlike Jericho's battle, God allowed people to take plunder in Ai. What was the will of God in this situation?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 전병욱(CO) 푸에블로한인교회, 최윤선(CO)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더라면

Had We Known What Was Important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은 그리 어려운 목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너무 쉽게 생각한 아이성과의 첫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어이없는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지라도 사실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전쟁에 임하면서도 이길 수 있을 거라생각했던 이스라엘의 교만은 이를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행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의 원인을 알게 되자 철저히 죄를 처리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주신 전략을 가지고,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작전을 잘 수행함으로써 아이성을 함락시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복 사업을 일단 중단하고 에발산에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돌에 새깁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리고 그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 가운데에 모이게 한 후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당독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에발산은 저주의 율법이 선포되는 산이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율법이 선포되는 산입니다.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그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몫입니다.

Having conquered the invincible city of Jericho, the city of Ai might not have been a difficult target. Was that why? Having thought lightly of it, the first battle against Ai ended in unexpected defeat. The Israelites might not have known it but they were doomed to fail. Because Achan's sin caused God to oppose Israel. But the arrogance of Israel to assume victory without the help of God made them blind to this truth.

Fortunately, as soon as Joshua and the people of Israel realized the cause of their defeat, they acted quickly to treat their sin, repented, and thereby received a second chance from God. This time with God's strategy and under the leadership of Joshua, the Israelites successfully carried out the strategy to rout the city of Ai. Now Joshua as well as the people of Israel together understood what was really important. So they paused their campaign to conquer, and built an altar on Mt. Ebal, offered the burnt offering and peace offering, and inscribed the laws of God on the stone. They now understood how important it was to worship God and live the life of a worshiper. Joshua gathered the people of Israel on Mt. Ebal and Mt. Gerizim and he read all the words of the law — the blessings and the curses. In Deuteronomy, the law of curses was read on Mt. Ebal and the law of blessings was read on Mt. Gerizim. Which mount to choose is up to them. And is up to us.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П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Ragg·Thu 10

2022 November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다

A Decision Made Instantly Will Have a Lifelong Effect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가나안 지역 왕들이 모여 이스라엘과 싸우려 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기브온 사람들은 꾀를 내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뒤늦게 속았다는 것을 알고 후회했지만, 정한 조약은 지켜집니다.

♬ 새370장(통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묵상·여호수아 9:3-16

통독.여호수아 9장

- 3기브온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 4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해어진 전대와 해어지고 찢어 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 5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 팡이가 난 떡을 주비하고
- 6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 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 와 조약을 맺음시다 하니
- 7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 라하나
- 8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 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9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 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 10도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 음이니이다
- 11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 12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이게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 13도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 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 아졌나이다 한지라
- 14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 15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 16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Reading Insight

As the kings of nations around Canaan organized to fight against Israel, the people of Gibeon who feared God made a treaty with Israel. Later, Israel found out that they were misled and regretted the decision but the treaty was upheld.

Hymn370 The Trusting Heart to Jesus Clings

Meditation • Joshua 9:3-16

Reading Plan · Joshua 9

- ³ But when the inhabitants of Gibeon heard what Joshua had done to Jericho and to Ai,
- ⁴ they on their part acted with cunning and went and made ready provisions and took worn-out sacks for their donkeys, and wineskins, worn-out and torn and mended,
- ⁵ with worn-out, patched sandals on their feet, and worn-out clothes. And all their provisions were dry and crumbly.
- ⁶ And they went to Joshua in the camp at Gilgal and said to him and to the men of Israel, "We have come from a distant country, so now make a covenant with us."
- ⁷ But the men of Israel said to the Hivites, "Perhaps you live among us; then how can we make a covenant with you?"
- 8 They said to Joshua, "We are your servants." And Joshua said to them, "Who are you? And where do you come from?"
- ⁹ They said to him, "From a very distant country your servants have come, because of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For we have heard a report of him, and all that he did in Egypt,
- ¹⁰ and all that he did to the two kings of the Amorites who were beyond the Jordan, to Sihon the king of Heshbon, and to Og king of Bashan, who lived in Ashtaroth.
- 11 So our elders and all the inhabitants of our country said to us, 'Take provisions in your hand for the journey and go to meet them and say to them, "We are your servants. Come now, make a covenant with us."'
- 12 Here is our bread. It was still warm when we took it from our houses as our food for the journey on the day we set out to come to you, but now, behold, it is dry and crumbly.
- ¹³ These wineskins were new when we filled them, and behold, they have burst. And these garments and sandals of ours are worn out from the very long journey."
- ¹⁴ So the men took some of their provisions, but did not ask counsel from the LORD.
- 15 And Joshua made peace with them and made a covenant with them, to let them live, and the leaders of the congregation swore to them.
- 16 At the end of three days after they had made a covenant with them, they heard that they were their neighbors and that they lived among them.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여호수아는 왜 가나안 족속과 협약을 맺을 수 없다고 했을까요? (7절, 신7:1-2)

Why did Joshua declare that Israel could not make a treaty with the people of Canaan? (9:7, Deuteronomy 7:1–2)

당신은 선택의 순간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At the time of a decision, what do you rely on? What was the result?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한미연합감리교회, 이지성(CO) 뉴헤이븐연합감리교회, 최대호(CT)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생각지도 못했던 축복의 삶

Life Blessed Unexpectedly

거짓말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혹 어떤 것은 알면서도 웃어넘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로 인해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아마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거짓말이나 실수도 다르게 받아들여지나 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림을 보고는 모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그들과 대항하기 위해 힘을 모을 때 기브온 족속은 자신들이 아무리 힘을 모은다한들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라합과 그 가족의 이야기를 들었던 걸까요?

이제 그들은 여러 거짓말을 해 가며 이스라엘과 화해하고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여호수아는 그들의 이야기에 속고 맙니다. 얼마 전까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 큰 고통을 경험한 그가 다시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그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아 속게 만드신 것은 아닐까요? 어쨌든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평생 성막을 위해 일하는 자들로 살도록 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런가요? 좌악이 가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구원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재단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축복의 삶을 그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I hate lies the most. But sometimes I acquiesce with knowing laughs, and sometimes I am impressed by them. Maybe, depending on intent, some lies or mistakes are received differently. The people of Gibeon were like that in today's scripture. Having watched Israel rout Jericho and Ai and all surrounding nations of Canaan organizing to combat Israel, the people of Gibeon understood that they could not put up a fight against God and win no matter how well they organized their allies. Could they have heard the story of Rahab and her family?

Now the people of Gibeon employed all kinds of lies and made a treaty with Israel, and implored the mercy from God to save them. Then, somehow Joshua failed to inquire of God about the Gibeonites tactics and fell for their lies. Sometime ago Joshua experienced great difficulty because he failed to inquire of God, and now Joshua made the same mistake. How do we interpret this? Is it possible that God blocked and closed Joshua's eyes and ears and allowed him to be tricked? Regardless, the Gibeonites were saved. Later on, having realized that he was tricked, Joshua appeared to punish the Gibeonites by making them work all their life for the Tent of God, but was it really punishment? The Gibeonite were full of sins and doomed to die but ended up being saved and furthermore they ended up working for and at the altar of God. So they ended up living the life of blessing that nobody even imagined.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П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agg·Fri

2022 November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The Lord Fought for Israel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아모리 연합군의 공격을 받은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적을 나타내심으로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 새80장(통101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묵상·**여호수아 10:6**−15

통독 여호수아 10장

- 6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 **7**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 가니라
- 8 그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 9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 게 이르니
- 10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므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륙하고 벤호론에 올 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11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벤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 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 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 12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 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 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 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 13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 14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같은 날은 전에 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 15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 왔더라

Reading Insight

Having been attacked by the Amorites and their allies, the Gibeonites requested help from Israel. Israel defeated the Amorites and their allies in a great victory at Gibeon as foretold by signs from God.

☐ Hymn80 There Is No Name So Sweet

Meditation • Joshua 10:6-15

Reading Plan · Joshua 10

- ⁶ And the men of Gibeon sent to Joshua at the camp in Gilgal, saying, "Do not relax your hand from your servants. Come up to us quickly and save us and help us, for all the kings of the Amorites who dwell in the hill country are gathered against us."
- ⁷ So Joshua went up from Gilgal, he and all the people of war with him, and all the mighty men of valor.
- 8 And the LORD said to Joshua, "Do not fear them, for I have given them into your hands. Not a man of them shall stand before you."
- ⁹ So Joshua came upon them suddenly, having marched up all night from Gilgal.
- 10 And the LORD threw them into a panic before Israel, who struck them with a great blow at Gibeon and chased them by the way of the ascent of Beth-horon and struck them as far as Azekah and Makkedah.
- 11 And as they fled before Israel, while they were going down the ascent of Beth-horon, the LORD threw down large stones from heaven on them as far as Azekah, and they died. There were more who died because of the hailstones than the sons of Israel killed with the sword.
- 12 At that time Joshua spoke to the LORD in the day when the LORD gave the Amorites over to the sons of Israel, and he said in the sight of Israel, "Sun, stand still at Gibeon, and moon, in the Valley of Aijalon."
- 13 And the sun stood still, and the moon stopped, until the nation took vengeance on their enemies. Is this not written in the Book of Jashar? The sun stopped in the midst of heaven and did not hurry to set for about a whole day.
- ¹⁴ There has been no day like it before or since, when the LORD heeded the voice of a man, for the LORD fought for Israel.
- 15 So Joshua returned, and all Israel with him, to the camp at Gilgal.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초자연현상 은 무엇입니까? (11, 13절) What were the supernatural

What were the supernatural phenomena that God showed? (10:11, 13)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How do we know that God was responsible for the phenomena?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새생명교회, 최동현(CT) 커네티컷한인중앙교회, 김정환(CT)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God Did It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했습니다. 아모리 연합군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그에 속한 모든 땅을 차지합니다. 그다음에도 립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을 차례대로 정복합니다. 이런 정복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42절) 즉,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하신 것입니다.

한국 감리교 선교사로 사역하다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저를 하나님은 지금의 그런스보로한인연합감리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사실 저는 자격도 능력도 배경도 없는 사람입니다. 처음 Rankin 감리사님을 만났을 때, 그분은 저를 추천받았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만나는 것일 뿐, 제게 관심조차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다시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 찾아갔더니, 그분이 저를 만난 날 밤에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꿈에 저를 보게 되었는데, 어릴 적 '기니피그'를 선물로 받았을 때의 기쁨과 감동이 그대로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파송 받은 이후에도 저희 가정과 교회를 너무 끔찍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널 보내셨어. 그래서 널 보면 난 항상 행복해"였습니다.

Joshua and the people of Israel conquered the Canaanite territories one-by-one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Not only were the Amorites and their allies routed but Israel also occupied all the land that belonged to the Amorites. Afterwards, Israel conquered Libnah, Lachish, Eglon, Hebron and Debir. Through the story of this conquest, what thought does the Bible want to convey? "All these kings and their lands Joshua conquered in one campaign, because the LORD, the God of Israel, fought for Israel" (10:42). In other words, the key point is that because God fought for Israel, the people of Israel were able to occupy the land. God did all this.

I had spent only a short period of time in the U.S. after my ministry experience as a missionary from the Korean Methodist Church when God sent me to the United Methodist Church in Greensboro, where I currently serve. I do not have fancy credentials or qualifications or capabilities. When I first met District Superintendent Rankin, he might have felt obligated to meet me because of recommendations but he did not have an interest in me. But the next day, he said he wanted to see me again. When we met he told me about the dream he had the night of our first meeting. He said that he saw me during the dream and felt the same joy he experienced when he received a guinea pig as a gift when he was young. DS Rankin said that this feeling was given by the Holy Spirit. Ever since then, even after I was appointed, he has shown great love for me and my family. He always says, "You are a godsend. And I am always happy when I see you."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ER일·Sat 12

2022 November

가나안 북쪽 지역을 취하다

Took the Northern Region of Cana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여호수아가 가나안 북쪽 지역에서의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온 땅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 새351장(통389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묵상·**여호수아 11:16-23**

통독 · 여호수아 11장

16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 하였으니

17곧 세일로 올라가는 할락 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죽였으며

18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19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20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 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 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21 그 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22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23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Reading Insight «

As Joshua was victorious in the last war in the northern region of Canaan, Israel succeeded in conquering all the land that God told Moses to take

Hymn351 Onward, Christian Soldiers

Meditation • Joshua 11:16-23

Reading Plan · Joshua 11

- 16 So Joshua took all that land, the hill country and all the Negeb and all the land of Goshen and the lowland and the Arabah and the hill country of Israel and its lowland
- 17 from Mount Halak, which rises toward Seir, as far as Baal-gad in the Valley of Lebanon below Mount Hermon. And he captured all their kings and struck them and put them to death.
- 18 Joshua made war a long time with all those kings.
- 19 There was not a city that made peace with the people of Israel except the Hivites, the inhabitants of Gibeon. They took them all in battle
- **20** For it was the LORD's doing to harden their hearts that they should come against Israel in battle, in order that they should be devoted to destruction and should receive no mercy but be destroyed, just as the LORD commanded Moses.
- 21 And Joshua came at that time and cut off the Anakim from the hill country, from Hebron, from Debir, from Anab, and from all the hill country of Judah, and from all the hill country of Israel. Joshua devoted them to destruction with their cities.
- ²² There was none of the Anakim left in the land of the people of Israel. Only in Gaza, in Gath, and in Ashdod did some remain.
- ²³ So Joshua took the whole land, according to all that the LORD had spoken to Moses. And Joshua gave it for an inheritance to Israel according to their tribal allotments. And the land had rest from war.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마지막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은 무엇입니까? (6절) What was God's strategy for the last battle of Israel? (11:6)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 을 대적하고 은혜를 거부하게 만 듭니까?

What is making you go against God and refuse the grace of God?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하트포드한인교회, 최운돈(CT)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 송종남(DE)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만만치 않은 세상,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Can I Win in This World that Is Not Easy?

드디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투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예전의 애굽의 노예였다고, 광야에서 떠돌던 백성이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승승장구합니다. 가나안 남부, 중부를 모두 정복하고 이제 북쪽만남았습니다. 그런데 북쪽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한북쪽 나라 동맹군들은 철기문화로 무장하여 말과 병거를 거느린 최강 부대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곤봉이나 단도로 무장한 청동기 문화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보병입니다. 가나안 동맹군이 메롬 물가에 집결했는데, 그 수가모래와 같이 많다 합니다. 크고 넓고 강인하다고 했던 여리고성이 8에이커의 성읍이었는데, 하솔은 무려 200에이커의 성읍이랍니다. 그러니 그 규모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세상에서 보는 전력으로 따지자면 상대조차 되지 않을 듯합니다.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지금의 우리들도 늘 던지는 질문입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 과연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전 1:27-29) 이길 수 있는 방법? 저는 오늘의 찬송가를 불러보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Finally the battle of Israel in Canaan came to its final stage. Israel is not the same Israel as it was at the time of slavery in Egypt or as a wandering people in the wilderness. Israel is now a triumphant people. The southern and middle parts of Canaan have been taken, and only the northern region was left. But the northern region was not a shoo–in. King Jabin of Hazor and his allies in the northern region were powerful military forces equipped with Iron Age tools like horses and chariots. On the other hand, Israel's army was mostly foot soldiers and equipped with clubs and daggers. When the allies of Canaan gathered at the Waters of Merom, they were as numerous as the sand on the seashore. Jericho, large and strong, was a city of 8 acres, but Hazor was a city of 200 acres. So the scale was huge beyond imagination. In terms of world army strength, Israel was no match for them. Could Israel possibly win?

This is the same question that we often ask even today. The world is not easy, can I win in this world? "God chose the foolish things of the world to shame the wise; God chose the weak things of the world to shame the strong. He chose the lowly things of this world and the despised things – and the things that are not – to nullify the things that are, so that no one may boast before him" (1 Cor 1:27–29). The winning method? I sing today's hymn. "Onward, Christian soldiers, Marching as to war, With the cross of Jesus, Going on before."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П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13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 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 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
	\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NOVEMBER

다 지켜 행하라

황승일 목사(우드랜드힐스연합감리교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지파 별로 나누어준 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수 23:6).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는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 은 내리신 명령을 그대로 반복합니다(수 1:7).

>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수 23:11)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지켜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면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명령은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수 23:7) 그들과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지 말라고 합니다(수 23:12). 이 명령을 어기면, 그들이 올무와 덫이 되고, 옆구

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 당한다고(수 23:13)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다 임한 것 같이 불길한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COVID-19의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불행한 일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떠나 좌로나 우로 치우치면서도 큰 재앙이나 고난을 겪지 않고 안일하게 살아온 날들을 돌아봅니다. 무서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2022 November

이스라엘이 정복한 왕들

The Kings Defeated by Israel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가나안 정복을 마친 후, 그동안 정복한 성과 왕에 대해 정리합니다. 먼저 모세가 정복한 시혼과 옥에 대한 소개로부터 요단강을 건넌 후 여호수아가 정복한 31명의 왕들을 소개합니다.

♬ 새340장(통432장) 나의 믿음 약할 때

묵상·**여호수아 12:1-8**

통독 여호수아 12장

- 1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 2시혼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압복 강까지이며
- 3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벧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슭까지이며
- 4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 5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 6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 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 7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 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 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 8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혯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위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Reading Insight ...

After conquering Canaan, the list of the kings that the Israelites have defeated is given. After naming Sihon king of the Amorites and Ok king of Bashan that Moses conquered, the names of thirty-one kings that Joshua conquered on the west side of the Jordan are listed

340 When I Fear My Faith Will Fail

Meditation • Joshua 12:1-8

Reading Plan · Joshua 12

- ¹ Now these are the kings of the land whom the people of Israel defeated and took possession of their land beyond the Jordan toward the sunrise, from the Valley of the Arnon to Mount Hermon, with all the Arabah eastward:
- 2 Sihon king of the Amorites who lived at Heshbon and ruled from Aroer, which is on the edge of the Valley of the Arnon, and from the middle of the valley as far as the river Jabbok, the boundary of the Ammonites, that is, half of Gilead,
- ³ and the Arabah to the Sea of Chinneroth eastward, and in the direction of Beth-jeshimoth, to the Sea of the Arabah, the Salt Sea, southward to the foot of the slopes of Pisgah;
- 4 and Og king of Bashan, one of the remnant of the Rephaim, who lived at Ashtaroth and at Edrei
- ⁵ and ruled over Mount Hermon and Salecah and all Bashan to the boundary of the Geshurites and the Maacathites, and over half of Gilead to the boundary of Sihon king of Heshbon.
- 6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and the people of Israel defeated them. And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gave their land for a possession to the Reubenites and the Gadites and the half-tribe of Manasseh.
- ⁷ And these are the kings of the land whom Joshua and the people of Israel defeated on the west side of the Jordan, from Baal-gad in the Valley of Lebanon to Mount Halak, that rises toward Seir (and Joshua gave their land to the tribes of Israel as a possession according to their allotments,
- 8 in the hill country, in the lowland, in the Arabah, in the slopes, in the wilderness, and in the Negeb, the land of the Hittites, the Amorites, the Canaanites, the Perizzites, the Hivites, and the Jebusite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모세와 여호수아때 정복한 왕은 모 두 몇명입니까? (2, 4, 24절) How many kings in total were conquered by Moses and Joshua? (12:2, 4, 24)

당신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기 억을 떠올려 보세요.

Share some of the lost memories of your personal experiences of God.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철구(FL) 올랜도한인연합감리교회, 김호진(FL)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그가 하신 일을 보래!

Look at What He Has Done!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저 별생각 없이 빨리 대충 읽고 넘어갔던 본문이기도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주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세가 정복한 두 명의 왕,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31명의왕의 명단이 주는 의미를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얼마 전 한국에 계신 장모님이 여러 사진들을 모아서 카톡에 올리셨습니다. 아내의 어릴 적 사진부터 아이들의 성장 때의 사진 그리고 최근의 모습들까지 시간적으로는 40년이 넘는 세월의 흔적이 그 사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사진을 보면서 했던 말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였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잠잠하실까?' 하는 마음이 있었던 제게 오래된 사진 하나하나가 주는 의미는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움직이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31번의 전쟁 이야기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저 몇 개의 전투 이야기만 알뿐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단 몇 개의 전투에만 관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열된 왕의 이름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후손들은 언제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 역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The main purpose of today's scripture is to list the names of the kings that Israel conquered. As such, it is easy to quickly skim through the list without much thought. But there must be a good reason why this list has been provided for us. If so, then shouldn't we consider the importance of the two kings conquered by Moses and thirty-one kings that Joshua conquered?

Not too long ago, my mother-in-law who lives in Korea posted many photos onto the family chatroom. They were childhood photos of my wife, photos of my children growing up, and photos from recent times, telling the stories of the family over the last 40 years. Looking over the photos together with my wife, we realized how so many things took place over the years. Each of these photos spoke to me in special ways because I was recently thinking to myself how quiet God has been these days. These photos reminded me of how God is with us and is always at work in our lives in every moment of our life journey.

We do not know what the Israelites went through in each of the 31 battles they fought. We know a little bit about only a few battles they fought. But one thing that we do know with certainty is that God was involved in each and every battle, even in the battles we know nothing about. Because God was with them, Israel is still in existence today. Whenever they read the list of the kings that were conquered, the descendants of Israel will always remember God who was with their ancestors. And they will also remember that this same faithful God is with them as well.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국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ne Prayer

П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2022 November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

The Land That
Has Not Yet
Been Taken Over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여호수아 13-21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사건을 다룹니다. 하지만 가나안에는 여전히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많아 늙은 여호수아에게 정복할 땅까지 미리 분배하라고 하십니다.

♬ 새344장 믿음으로 가리라

묵상·**여호수아 13:1-7**

통독 여호수아 13장

1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 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 아 있도다

2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3곧 애굽 앞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4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므아 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5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의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6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 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 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 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7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Reading Insight ·····

Chapters 13–21 in the Book of Joshua deal with the allocation of conquered land to the tribes of Israel. However, there was still land left to be conquered. Knowing that Joshua has grown old, the Lord tells Joshua to allocate the land that will be taken over at a later time.

7 Hymn344 Trav'ling Life's Road By Our Faith

Meditation • Joshua 13:1-7

Reading Plan · Joshua 13

- ¹ Now Joshua was old and advanced in years, and the LORD said to him, "You are old and advanced in years, and there remains yet very much land to possess.
- ² This is the land that yet remains: all the regions of the Philistines, and all those of the Geshurites
- 3 (from the Shihor, which is east of Egypt, northward to the boundary of Ekron, it is counted as Canaanite; there are five rulers of the Philistines, those of Gaza, Ashdod, Ashkelon, Gath, and Ekron), and those of the Avvim,
- ⁴ in the south, all the land of the Canaanites, and Mearah that belongs to the Sidonians, to Aphek, to the boundary of the Amorites.
- ⁵ and the land of the Gebalites, and all Lebanon, toward the sunrise, from Baal-gad below Mount Hermon to Lebo-hamath,
- ⁶ all the inhabitants of the hill country from Lebanon to Misrephoth-maim, even all the Sidonians. I myself will drive them out from before the people of Israel. Only allot the land to Israel for an inheritance, as I have commanded you.
- 7 Now therefore divide this land for an inheritance to the nine tribes and half the tribe of Manasseh"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분배하면 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6절)

What promise did the Lord give as He was allocating land that had yet to be conquered? (13:6)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당신은 지금 어떤 과정중에 계십니까?

How would you describe where you are in the journey toward perfection in your life?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

탈라하시한인연합감리교회, 김종권(FL) 탬파한인연합감리교회, 백승린(FL) 목회자를 위한 기도

완성은 과정입니다

Perfection is a Process

제가 도미니카공화국 선교사로 파송 받아 산띠아고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사역한 지 4년이 지났을 무렵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언제쯤 한인교회를 사임하고 현지인 선교에 전념해야 하는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 중 "한인교회가 가장 좋을때 떠나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언제가 가장 좋은 때일까를 고민 중에, 산띠아고에 유일한 한인교회인 이 교회에서 모든 산띠아고 교민들 가정이 예배할 수 있게 되는 때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뜻을 교회에 전한지 얼마 후 도미니카공화국수도에서 사역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전화를 하시더니 온갖 욕을 퍼부으시는 겁니다. "네가 선교사냐? 산띠아고 모든 교민이 한인교회 교인이 되면 교회를 떠날 거라고?한인교회가 얼마나 편하고 좋았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가면서 교회에 남아 있으려고 해? 만약 네가 그 교회를 떠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사실 그때만 해도 교민들 중 절반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때였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후 매주일 새로운 가정이 교회에 등록하면서 채 1년이 되지 않아 모든 가정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인교회를 사임하고 현지인 선교에 전념하게 되었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현지인 사역이 순탄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몇 년간 저는 제 생애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지금 고백하는 것은 그 시간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너무나 소중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비난하던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구요? 제가 도미니카 떠나는 날 미안하다며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About four years into ministry as a missionary at Santiago Korean Church in the Dominican Republic, my biggest concern in prayer was when I would be able to leave the Korean church I was serving to do full time mission work for the native people there. In my time of prayer, I sensed a voice in me saying, "leave when the Korean ministry is at its best." I felt that the right time for me to leave would be when all of the Korean families in Santiago began to live a life of faith, serving the Lord and worshiping together at the only Korean church in Santiago. At that time, only about half of the Korean families in Santiago came to worship on Sundays. Soon after I shared my intention with the people at the church, I received a call from another missionary who was serving in the capital of Dominican Republic. It was not a pleasant phone call. He was very upset about what I shared and totally misunderstood my intention and vision of ministry. He thought I was lying when I told my church people that I would leave the ministry to serve the native people when the church experienced growth as I had once hoped. To everyone's surprise, more and more Korean families began to worship at the church and, within a year, every Korean family in Santiago joined the church. After that, I left the Korean church and began a full-time ministry serving the native people

When I left the Korean church, I thought that the ministry for the natives would go well since it was launched in obedient response to what I sensed as God's will for me. But the next few years in that ministry turned out to be some of the most difficult and challenging times of my life. At first, I didn't know why I was suffering so much and had great difficulty accepting my situation. But, looking back, I can now say with confidence that those few years helped me to be who I am today, and I came to cherish those difficult years. I am continuing my journey toward perfection even today. Are you curious about what happened to that missionary who was very critical of me? He became my biggest supporter and shed the most tears for me on the day when I left Santiago at the end of my ministry ther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rayer \square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B일·Wed **16**

2022 November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Now Give Me This Hill Country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정복한 땅을 분배할 때에 갈렙은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땅은 아낙 자손이 크고 견고한 성을 짓고 사는 곳으로 다들 두려워했지만 갈렙에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 새549장(통431장) 내 주여 뜻대로

묵상·**여호수아 14:6-15**

통독 여호수아 14장

- 6 그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7 내 나이 사십 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 8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 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 9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 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 10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 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사십오 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 늘 내가 팔십오 세로되
- 11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 하니 내 힘이 그 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 당할 수 있으니
- 12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하니
- 13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 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 14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 15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Reading Insight ...

As Joshua allocates the conquered lands in Canaan, Caleb asks Joshua to give him the land of Hebron. Although this land was occupied by the Anakites and their cities were large and fortified, Caleb saw it as the land of promise from the Lord.

☐ Hymn549 My Jesus, As Thou Wilt

Meditation • Joshua 14:6-15

Reading Plan · Joshua 14

- 6 Then the people of Judah came to Joshua at Gilgal. And Caleb the son of Jephunneh the Kenizzite said to him, "You know what the LORD said to Moses the man of God in Kadesh-barnea concerning you and me.
- ⁷ I was forty years old when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sent me from Kadesh-barnea to spy out the land, and I brought him word again as it was in my heart.
- 8 But my brothers who went up with me made the heart of the people melt; yet I wholly followed the LORD my God.
- ⁹ And Moses swore on that day, saying, 'Surely the land on which your foot has trodden shall be an inheritance for you and your children forever, because you have wholly followed the LORD my God.'
- 10 And now, behold, the LORD has kept me alive, just as he said, these forty-five years since the time that the LORD spoke this word to Moses, while Israel walked in the wilderness. And now, behold, I am this day eighty-five years old.
- ¹¹ I am still as strong today as I was in the day that Moses sent me; my strength now is as my strength was then, for war and for going and coming.
- 12 So now give me this hill country of which the LORD spoke on that day, for you heard on that day how the Anakim were there, with great fortified cities. It may be that the LORD will be with me, and I shall drive them out just as the LORD said."
- ¹³ Then Joshua blessed him, and he gave Hebron to Caleb the son of Jephunneh for an inheritance.
- 14 Therefore Hebron became the inheritance of Caleb the son of Jephunneh the Kenizzite to this day, because he wholly followed the LORD, the God of Israel.
- 15 Now the name of Hebron formerly was Kiriath-arba. (Arba was the greatest man among the Anakim.) And the land had rest from war.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45년 전 갈렙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9절) What was the promise that the Lord gave Caleb 45 years earlier? (14:9)

지금 당신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약 속을 붙들수 있도록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Do you have a promise of the Lord that you are holding onto today? What is the scripture that supports your belief in that promise?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포트피어스한인선교감리교회, 김선용(FL) 헤르난도한인교회, 윤대섭(FL)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축복의 선택

A Blessed Choice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에 의해 분배된 요단 서편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서편 땅들은 이미 동편 땅을 분배 받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아홉 지파 반에게 분배됩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 나눌 때에 유다 지파가 첫 번째 선택권을 갖습니다. 이때 유다 지파를 이끌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다름 아닌 45년 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했던 '갈렙'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 85세, 나이로 보나 공적으로 보나 그는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명한 땅은 너무나 의외의 땅 '헤브론'입니다. 삼손도 어찌하기 어렵다던 기골이 장대하고 강인한 아낙 자손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헤브론을 분배 받는 지파는 분명 그들과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갈렙'은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는 왜 첫 번째 선택권이 있음에도 남들이 가장 싫어한 곳을 선택했을까요?

하지만 그의 선택은 분명 잘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은 축복받은 선택이었고, 그 결과 오늘까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것, 가지지 못한 것을 갈렙은 보고 가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지 오늘 하루 기도하면서 묵상하여 내 삶에서도 그렇게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Today's scripture tells the story of the land west of the Jordan that was allocated by Joshua. The land west of the Jordan was allocated to the nine-and-a-half tribes of Israel after the land east of the Jordan was given to the tribes of Reuben, Gad and the half of Manasseh. In the process of allocating the land west of the Jordan by lot, the tribe of Judah received the first assignment. Here, we meet a person who has been leading the tribe of Judah. This person is none other than Caleb who explored the land of Canaan with Joshua 45 years earlier. Caleb is now 85 years old and he is more than ready to receive his inheritance of the land. But surprisingly he asks for the land of Hebron, a land where even the mighty Samson struggled because of the strong and huge Anakites who once lived there. Whoever receives this land as inheritance must first fight these people. But Caleb asks Joshua to give him this land. Why did he ask for the land that most people wanted to avoid when he had a chance to ask for something else?

Contrary to how it appears, his choice was the right choice because it came with the blessing of the Lord. Scripture tells us that Hebron belonged to Caleb ever since because he followed the Lord, the God of Israel, wholeheartedly. Caleb saw something that others didn't see and received something that others didn't receive. What do you think that was? As you go through this day, may you reflect upon your life in light of Caleb's choice and live a life of true blessednes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섯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17

2022 November

헤브론과 드빌을 정복한 갈렙

Caleb Taking the Land of Hebron and Debir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갈렙은 헤브론 뿐 아니라 드빌까지 정복함으로써 하나님 께서 주신 약속을 넉넉히 성취합니다.

♬ 새545장(통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묵상·여호수아 15:13-19

통독 여호수아 15장

13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 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 였더라

14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새와 아히 만과 달매를 쫓아내었고

15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16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17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옷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18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워하느냐 하니

19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Reading Insight ·····

This text specifically mentions the land distributed to the tribe of Judah. In the process, Caleb fulfills God's promise overwhelmingly by conquering not only Hebron but also Debir.

3 Hymn545 Down in the Valley Where the Mists of Doubt Arise

Meditation Joshua 15:13-19

Reading Plan · Joshua 15

- 13 According to the commandment of the LORD to Joshua, he gave to Caleb the son of Jephunneh a portion among the people of Judah, Kiriath-arba, that is, Hebron (Arba was the father of Anak).
- 14 And Caleb drove out from there the three sons of Anak, Sheshai and Ahiman and Talmai, the descendants of Anak.
- 15 And he went up from there against the inhabitants of Debir. Now the name of Debir formerly was Kiriath-sepher.
- 16 And Caleb said, "Whoever strikes Kiriath-sepher and captures it, to him will I give Achsah my daughter as wife."
- 17 And Othniel the son of Kenaz, the brother of Caleb, captured it. And he gave him Achsah his daughter as wife.
- 18 When she came to him, she urged him to ask her father for a field. And she got off her donkey, and Caleb said to her, "What do you want?"
- 19 She said to him, "Give me a blessing. Since you have given me the land of the Negeb, give me also springs of water." And he gave her the upper springs and the lower spring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갈렙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성 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성취되 지 않아 미뤄진 약속은 무엇입니 까? (63절)

God's promise to Caleb was fulfilled but what are the promises that have not yet been fulfilled and have been postponed? (15:63)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바꾸어진 적은 없으셨습니까? Has the Word of the Lord ever been changed in my mind and in my own way?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노크로스한인교회, 박희철(GA) 뉴난한인감리교회, 남성원(G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누구나 믿음으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 마무리는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Anyone Can Start with Faith, But Not Everyone Can Finish.

아주 오래전 삼각산 기도원에서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했는데, 이때 사람들이 성령 체험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병을 고침 받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집회 기간 중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계곡물이 넘쳐흐르는 바람에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집회에 참석했던 세 명의 청년들이 집회 중에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억하고는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바다를 걸은 것처럼, 자신들도 넘치는 계곡물을 건너갈 수 있다고 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더니 계곡물로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물속에 들어간 즉시, 그들은 급류에 휩싸였고 3일이 지난 후에 그들의 시신이 계곡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사건은 한국 기독교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신문에는 이런 제목이 달렸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느냐?"라며 비난을 했고, 교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경험했었던 것이지요.

많은 성도들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며 실망한 채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했답니다.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베드로의 경우, 그는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적 믿음이 있었지만, 그 지식의 믿음만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선포되어졌을 때 그가 물 위를 걸었던 거죠.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45년간 변함없이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A long time ago, a pastor used to lead prayer meetings at the Triangular Mountain Prayer Center, where people allegedly received the Holy Spirit, collapsed, or were healed. Many people heard this news and gathered there, but during one meeting, the valley water overflowed from too much rain which prevented people from coming in or out. At that time, three young men attending the meeting remembered the message of the pastor about Peter walking on the water. They quoted the passage from the Bible, saying that they too could cross the overflowing valley waters just as Peter walked on the sea, prayed loudly, and jumped into the valley water. But they were engulfed in the rapids and 3 days later their bodies were found down the valley. At that time, this incident had great repercussions for the Christian community of Korea. Some newspapers used the title, "Their God could not save them." Many unbelievers pointed fingers at the churches asking, "Why didn't God answer their prayers?" God was accused, and the churches experienced helplessness and said nothing.

Many believers were disappointed and lost faith in the "God who does not answer." "Why didn't God answer?" What if you were God? In fact, in Peter's case, he already had an intellectual belief in Almighty God, but he did not act with intellectual knowledge alone. He walked on the water right at the time when Jesus' words were proclaimed to Peter. Caleb had faith in the God–given covenant and waited 45 years. He didn't change his mind. And God's promises were fulfille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日の일・Fri 18

2022 November

땅을 더 요구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The Tribes of Ephraim and Manasseh Demanding More Land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쪽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에 그들은 분배받은 땅이 작다며 여호수아에게 불평합니다.

♬ 새352장(통390장) 십자가 군병들아

묵상·**여호수아 16:1**−10

통독·여호수아 16-17장

- 1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벧엘 산지 로 올라가고
- 2 벧엘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록에 이르고
- 3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벧호론 과 게셀에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 4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 더라
- 5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 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벤호론에 이르고
- 6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아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 7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 8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 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 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 9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 10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 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Reading Insight «

When the tribes of Ephraim and the half-tribe of Manasseh received the distribution of land, they complained to Joshua that the land they received was small.

☐ Hymn352 Stand up, stand up for Jesus

Meditation • Joshua 16:1-10

Reading Plan · Joshua 16–17

- ¹ The allotment of the people of Joseph went from the Jordan by Jericho, east of the waters of Jericho, into the wilderness, going up from Jericho into the hill country to Bethel.
- ² Then going from Bethel to Luz, it passes along to Ataroth, the territory of the Archites.
- ³ Then it goes down westward to the territory of the Japhletites, as far as the territory of Lower Beth-horon, then to Gezer, and it ends at the sea.
- 4 The people of Joseph, Manasseh and Ephraim, received their inheritance.
- ⁵ The territory of the people of Ephraim by their clans was as follows: the boundary of their inheritance on the east was Ataroth-addar as far as Upper Beth-horon,
- 6 and the boundary goes from there to the sea. On the north is Michmethath. Then on the east the boundary turns around toward Taanath-shiloh and passes along beyond it on the east to Janoah.
- 7 then it goes down from Janoah to Ataroth and to Naarah, and touches Jericho, ending at the Jordan.
- 8 From Tappuah the boundary goes westward to the brook Kanah and ends at the sea. Such is the inheritance of the tribe of the people of Ephraim by their clans,
- 9 together with the towns that were set apart for the people of Ephraim within the inheritance of the Manassites, all those towns with their villages.
- 10 However, they did not drive out the Canaanites who lived in Gezer, so the Canaanites have lived in the midst of Ephraim to this day but have been made to do forced labor.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족속은 누구입니까? (10절) Who are the people that the tribe of Ephraim does not completely drive out? (16:10)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심에도 당신 이 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What is it that you cannot abandon even though God wants you to?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ver for Churches & Pastors

라그레인지한인연합감리교회, 김형렬(GA) 사바나한인연합감리교회, 박진원(GA)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할 수 없는 것과 하지 않는 것

What You Can't Do and What You Don't Do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에 이어 땅을 분배 받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유다 지파가 왜 축복받은 자손인지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다지파의 땅 분배를 다룬 15장 63절에 보면, 유다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영어성경에는 "They could not drive out"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 에브라임은 게셀민족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They did not drive out"입니다. 즉, 유다족속은 하나님 명령대로 그들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던 것이고, 에브라임 족속은 그들을 아예 쫓아내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보니, 게셀민족은 에브라임을 위해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브라임 족속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이의, 즐거움, 편안함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훗날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를 말입니다. 먼 훗날 유다민족에서는 메시아가 탄생하지만, 반대로 에브라임은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고 맙니다. 우리 선택의 기준은 항상 예수님이 되었으면좋겠습니다.

Today's text tells the story of the tribes of Ephraim and Manasseh, who are divided over the land after Judah's allotment. But in today's Words, we can once again confirm through the tribe of Ephraim that the tribe of Judah was a blessed offspring. In 15:63, which deals with the distribution of the land of the tribe of Judah, Judah could not drive out the Jebusites. Ephraim, on the other hand, did not drive out the Gezer people. In other words, Judah tried to drive them out according to God's commands, but they could not, and Ephraim did not even try to drive them out.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Gezer people became servants of servitude for Ephraim.

In this way, the Ephraim chose the visible benefits, pleasures, and comforts before their eyes over God's commands. But there is something that they didn't know then. What consequences will their choices have in the future? In the distant future, the Messiah is born in the nation of Judah. On the other hand, Ephraim becomes the center of idolatry. I hope that the criterion for our choice will always be Jesu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ER일·Sat

2022 November

나머지 땅의 분할

The Distribution of the Rest of the Land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여호수아는 아직 땅을 배정받지 못한 일곱 지파에게 땅을 두루 살피게 한 후,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어 그리게 한 후,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합니다.

♬ 새549장(통431장) 내 주여 뜻대로

묵상·**여호수아 18:1**−9

통독 여호수아 18장

- 1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 2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지파라
- 3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 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 4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 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 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 5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 6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 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 7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 8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 9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Reading Insight «

Joshua had the seven tribes who had not yet been assigned the land thoroughly inspect the land, divide the land into seven parts, and then draw lots to distribute the land.

☐ Hymn549 My Jesus, As Thou Wilt

Meditation · Joshua 18:1-9

Reading Plan · Joshua 18

- ¹ Then the whole congregation of the people of Israel assembled at Shiloh and set up the tent of meeting there. The land lay subdued before them.
- ² There remained among the people of Israel seven tribes whose inheritance had not yet been apportioned.
- 3 So Joshua said to the people of Israel, "How long will you put off going in to take possession of the land, which the LORD, the God of your fathers, has given you?
- 4 Provide three men from each tribe, and I will send them out that they may set out and go up and down the land. They shall write a description of it with a view to their inheritances, and then come to me.
- ⁵ They shall divide it into seven portions. Judah shall continue in his territory on the south, and the house of Joseph shall continue in their territory on the north.
- 6 And you shall describe the land in seven divisions and bring the description here to me. And I will cast lots for you here before the LORD our God.
- ⁷ The Levites have no portion among you, for the priesthood of the LORD is their heritage. And Gad and Reuben and half the tribe of Manasseh have received their inheritance beyond the Jordan eastward, which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gave them."
- 8 So the men arose and went, and Joshua charged those who went to write the description of the land, saying, "Go up and down in the land and write a description and return to me. And I will cast lots for you here before the LORD in Shiloh."
- ⁹ So the men went and passed up and down in the land and wrote in a book a description of it by towns in seven divisions. Then they came to Joshua to the camp at Shiloh,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나머지 일곱지파가 받을 땅의 분배 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4-6절)

How did the distribution of land for the remaining seven tribes proceed? (18:4–6)

영적으로 느슨해진 당신에게 주님 은 무엇을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What do you think the Lord will say to you who are spiritually loose?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 송희섭(GA) 아틀란타베다니한인감리교회, 남궁 전(GA)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Where Should We Go?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회막을 세웁니다. 이제 비로소 요단강가의 '길갈'의 시대는 종료되고, '실로'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실로는 이제 예루살렘 전까지 350년 동안 이스라엘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실로의 뜻은 "휴식, 안식"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는 아직 땅을 분배 받지 못한 7지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리 주저하고 있던 걸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임에도 새로운 땅, 세상으로 가는 것이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두려울 뿐입니다. 그래서 흩어지고 숨을 수밖에 없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 오셔서 평안을 말씀하시고는,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그 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둡고 악해 도 하나님이 계신 우리의 삶은, 우리의 교회는 '안식과 휴식'이 있습니다. 하 지만 그렇다고 그곳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나머지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기 위해 "지체하지 말라"라며 그들을 새로운 땅, 세상으로 보냅니다. 이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머물던 그들이 울타리 밖의 세상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에 따라 은혜가 이어질 수도, 끊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유다의 자손처럼 살아갈지, 에브라임의 자손처럼 살아갈지는 오직 그들의 몫입니다. 우리도 이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The whole congregation of the children of Israel gather in Shiloh and erect a tabernacle. It is just now that the era of "Gilgal" on the Jordan River has come to an end, and the era of "Shiloh" has begun. Shiloh will now be the center of Israel for 350 years ahead of Jerusalem. Shiloh means "rest, relaxation." But now there are 7 tribes left who have not yet been given the land. Why were they so hesitant? Perhaps they were afraid to go to a new land or a new world, even though it was the Promised Land that God had given them.

The disciples who were with Jesus are afraid of a new world without Jesus. So they were forced to disperse and hide, but the Risen Lord Jesus came to them, spoke of peace, and sent them into the world, promising to be with them forever. No matter how hard, dark, and evil life in the world may be, in the presence of God, our church has "rest and relaxation." But that doesn't mean you should just remain there.

Today, Joshua sends them to a new land, the new world, to "not delay" in order to distribute the land among the remaining 7 tribes. Now, when they stay within God's fence, they will also encounter the world outside the fence. Depending on how you live, grace can either be followed or cut off. It is up to them whether they will live like the descendants of Judah or the descendants of Ephraim. We also must go now. Where should we go?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20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 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 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
	/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

"추수감사절을 지나며…"

권혁인(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탈무드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배우는 사람'이다. 참으로 강한 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정말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부자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부잣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게 많아서 부자가 아 니라 받은 복을 헤아리며 감사할 줄 아는 정말 큰 부자 교회가 되는 꿈을 꿉니다. 찬송 가 가사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 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헤아리다 보면, 불평과 불만 그리고 절망과 상처로 가득 찼던 감정이 어느새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를 지배하던 욕망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복을 헤아리면서 마음 안에 있던 감정들을 하나둘씩 밖으로 꺼내다 보니까,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분도 받은 복을 한 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인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변 환경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아직도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응어리가

남은 이들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복을 헤아리며 마음 한가운데 엉겨붙어 있는 감정의 찌끼들을 꺼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무심코 지나쳐 버린 감사의 기억들을 떠올려 보세요. 주님이 주신 복을 깨닫고 진정한 부자가 되는 꿈을 꾸어 보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에 기뻐 찬양하는 부자 교인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지요. 바라는 것을 손에 쥘 수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나와 함께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처럼 비대면 시대에 여러분과 함께 순례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면, 신앙은 구원을 향해 가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그 외로운 길에서 여러분을 만나 조금씩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에 가장 서글픈 일 가운데 하나가 도무지 그리운 게 하나 없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기억할 만한 게 없다는 건 그만큼 혼자 외톨이가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교회와 이웃을 위해 섬김과 헌신의 손길을 나누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순례의 여정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저와 교역자 모두는 여러분이 가시는 순례의 길에 동행하며 온 맘을 다해 하나님의 교회를 진짜 부잣집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가난한 집이 아니라 진정 부잣집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섬김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모두의마음이 풍성한 감사의 열매로만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샬롬!

^{ваев}·моп 21

2022 November

땅의 분배를 마치다

Finish the Distribution of Land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시므온, 납달리, 잇사갈, 아셀, 납달리 그리고 단 지파의 땅이 분배됨 으로써 모든 땅의 분배를 마치게 됩니다.

♬ 새455장(통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묵상·여호수아 19:40-51

통독 · 여호수아 19장

- 40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 41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 42사알랍빈과아얄론과이들라와
- 43엘론과 딤나와 에그론과
- 44엘드게와 깁브돈과 바알랏과
- 45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 림몬과
- 46메얄곤과 락곤과 욥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 47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 48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 49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 50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딤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 51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 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Reading Insight ...

The tribes of Simeon, Naphtali, Issachar, Asher, Naphtali, and Dan receive their tribal allotment which concludes the land distribution.

☐ Hymn455 We Shall Be Like Him

Meditation • Joshua 19:40-51

Reading Plan · Joshua 19

- **40** The seventh lot came out for the tribe of the people of Dan, according to their clans.
- ⁴¹ And the territory of its inheritance included Zorah, Eshtaol, Ir-shemesh,
- 42 Shaalabbin, Aijalon, Ithlah,
- 43 Elon, Timnah, Ekron,
- 44 Eltekeh, Gibbethon, Baalath,
- 45 Jehud, Bene-berak, Gath-rimmon,
- 46 and Me-jarkon and Rakkon with the territory over against Joppa.
- 47 When the territory of the people of Dan was lost to them, the people of Dan went up and fought against Leshem, and after capturing it and striking it with the sword they took possession of it and settled in it, calling Leshem, Dan, after the name of Dan their ancestor.
- **48** This is the inheritance of the tribe of the people of Dan, according to their clans--these cities with their villages.
- ⁴⁹ When they had finished distributing the several territories of the land as inheritances, the people of Israel gave an inheritance among them to Joshua the son of Nun.
- **50** By command of the LORD they gave him the city that he asked, Timnath-serah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And he rebuilt the city and settled in it.
- 51 These are the inheritances that Eleazar the priest and Joshua the son of Nun and the heads of the fathers' houses of the tribes of the people of Israel distributed by lot at Shiloh before the LORD, at the entrance of the tent of meeting. So they finished dividing the lan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여호수아에게 분배된 땅은 어디입 니까? (50절)

Where was the land that was allotted to Joshua? (19:50)

지금 당신은 무엇을 시작하셨습니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꿈은 무엇입니까?

What have you started? What is God going to fulfill through your work?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아틀란타한인교회, 김세환(GA)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 신용철(G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This Is the Beginning

베냐민 지파에 이어 나머지 여섯 개 지파의 땅이 분배됨으로써 하나 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분배가 마무리됩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 는 제비뽑기로 이루어졌지만, 그들이 분배 받은 땅을 살펴보면 오래전 야곱의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져 왔고,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만합니다. 하지만 모든 지파가 그렇게 축복의 여정을 따라간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시작에 등장하는 유다 지파처럼 시므온 지파를 위해 땅을 나눠주며 믿음을 지켜 나가는 지파도 있지만, 시므온 지파처럼 오래전 '누이 딤나'사건이나 '발람과 발락'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악한 길을 걸어감으로 점차 그 지파의 모습이 희미해진 경우도 있고, 단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처럼 그들의 악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조차이름이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신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받아 감사하고 누리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우리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멋지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Continuing with the tribe of Benjamin, the remaining six tribes received their allotted territories in Canaan, the Promised Land from God. The land distribution in Canaan was done by lot, but if you look at each tribe's allotment, you can see that their forefather Jacob's blessing was kept and was completely fulfilled. But this was just the beginning. The Israelites started to live a life as immigrants in a new land called Canaan. Now they must be fruitful and multiply in their lives, remembering God's grace and blessings, and living out God's will. However, not all tribes have followed such a blessed journey.

Like the tribe of Judah, which appears at the beginning of today's text, there were tribes that shared territories with the tribe of Simeon and kept their faith. In some cases, the existence of tribes gradually faded as time passed. Simeon walked wickedly in such incidents with sister Dinah or the acts of Balaam and Balak. In other cases, like the tribe of Dan and Ephraim, even their names were omitted from the book of life because of their wickedness. Therefore, we can learn that our future depends on how we receive, acknowledge, and appreciate the grace and blessings that have been given to us. I pray that we, who live as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would live an amazing life by following and fulfilling God's will.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2022 November

도피성

The Cities of Refug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쪽의 세 곳, 요단 서쪽의 세 곳을 도피성으로 만드셔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가 피의 보복자를 피할 수 있도록 하 셨고,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 새390장(통444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묵상·**여호수아 20:1**-9

통독 여호수아 20장

- 1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2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 3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 4이 성읍들 중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 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 5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 6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 에 그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 읍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 7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계과 유다 산지의 기량 아르바 곧 헤브론과
- 8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 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 9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에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합이라

Reading Insight

God appointed three places east of the Jordan and three places west of the Jordan as cities of refuge. There a person who accidentally killed someone could escape a bloody avenger and be guaranteed an opportunity to defend themself.

☐ Hymn390 He Leadeth Me

Meditation • Joshua 20:1-9

Reading Plan · Joshua 20

- ¹ Then the LORD said to Joshua,
- ² "Say to the people of Israel, 'Appoint the cities of refuge, of which I spoke to you through Moses,
- ³ that the manslayer who strikes any person without intent or unknowingly may flee there. They shall be for you a refuge from the avenger of blood.
- ⁴ He shall flee to one of these cities and shall stand at the entrance of the gate of the city and explain his case to the elders of that city. Then they shall take him into the city and give him a place, and he shall remain with them.
- ⁵ And if the avenger of blood pursues him, they shall not give up the manslayer into his hand, because he struck his neighbor unknowingly, and did not hate him in the past.
- 6 And he shall remain in that city until he has stood before the congregation for judgment, until the death of him who is high priest at the time. Then the manslayer may return to his own town and his own home, to the town from which he fled."
- ⁷ So they set apart Kedesh in Galilee in the hill country of Naphtali, and Shechem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and Kiriath-arba (that is, Hebron) in the hill country of Judah.
- 8 And beyond the Jordan east of Jericho, they appointed Bezer in the wilderness on the tableland, from the tribe of Reuben, and Ramoth in Gilead, from the tribe of Gad, and Golan in Bashan, from the tribe of Manasseh.
- ⁹ These were the cities designated for all the people of Israel and for the stranger sojourning among them, that anyone who killed a person without intent could flee there, so that he might not die by the hand of the avenger of blood, till he stood before the congregation.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지정하신 이 유는 무엇입니까? (3절) Why did God designate cities of refuge? (20:3)

지금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도피성이 되고 있습니까? 도피성이 되기 위해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Is your church offering itself as a city of refuge? To be a city of refuge, what should your church do?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존스크릭한인연합감리교회, 서정일(GA) 트리니티한인교회, 김경곤(GA) 목회자를 위한 기도

도피성 제도의 원칙과 특징

Principl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ity of Refuge System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 출애굽기(21:12-14), 민수기(36:9-34), 신명 기(4:41-43, 19:1-13)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21장에는 고의적 살인과 우발적 살인은 다르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도피성의기초가 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도피성 제도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피의자는 도피성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충분히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발적인 살인으로 밝혀지게 되면 도피성에 머물 수 있게 되는데, 대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성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살인자의 생명을 대제사장의 생명과 일치시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죄를 감당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의 특징은 언제나 열려 있고 언제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도록 하룻길에 이르는 곳에 도피성이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과함께 거주하는 모든 민족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도피성에는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회복은 있는데, 차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Cities of refuge are also mentioned in Exodus 21:12–14, Numbers 36:9–34, and Deuteronomy 4:41–43; 19:1–13. Exodus 21 introduces the distinction between an intentional and accidental murder. These are the principles and regulations of the cities of refuge. First, anyone who kills a person accidentally and unintentionally may flee there. Second, the fugitive will be tried in the city of refuge, where they will be given a sufficient opportunity to defend themselves.

If it turns out to be an accidental or unintentional murder, the fugitive can stay in the city of refuge, but cannot leave the city until the high priest dies. A fugitive's life was equivalent with the life of the high priest as Jesus Christ took upon our sins. A distinctive feature of this city of refuge was that it was always open and always accessible. A city of refuge was located within a one–day journey so that anyone could easily flee there. This city of refuge was not only open to the Israelites, but also to all foreigners. If you think about that, this city was based on love, forgiveness, and restoration and there was no discrimination. Anyone who stayed there would've been aware of the presence of God that would lead them to live according to God's Word.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23

2022 November

레위 사람의 성읍

The Cities Allotted to the Levite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

열두 지파의 땅 분배가 끝나자, 레위사람들은 모세가 약속한 성읍과 목초지에 대한 분배를 요청하였고, 이에 모든 지파는 자신의 소유 가 운데 일부를 레위 사람들에게 줍니다.

♬ 새505장(통268장) 온 세상 위하여

묵상·여호수아 21:1-3, 41-45

통독 · 여호수아 21장

- 1 그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 아와
- 2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 3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 서 이 성읍들과 그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 41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음은 모두 마흔여덟 성읍이요 또 그목초지들이라
- 42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 43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 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 44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 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 45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Reading Insight ·····

When the land allotment of the twelve tribes was finished, the Levites requested towns to live in and pasturelands for their livestock as promised by Moses. All the tribes gave part of their territories to the Levites.

☐ Hymn505 Christ for the Whole Wide World!

Meditation • Joshua 21:1-3, 41-45

Reading Plan · Joshua 21

- ¹ Then the heads of the fathers' houses of the Levites came to Eleazar the priest and to Joshua the son of Nun and to the heads of the fathers' houses of the tribes of the people of Israel.
- ² And they said to them at Shiloh in the land of Canaan, "The LORD commanded through Moses that we be given cities to dwell in, along with their pasturelands for our livestock."
- ³ So by command of the LORD the people of Israel gave to the Levites the following cities and pasturelands out of their inheritance.
- ⁴¹ The cities of the Levites in the midst of the possession of the people of Israel were in all forty-eight cities with their pasturelands.
- 42 These cities each had its pasturelands around it. So it was with all these cities.
- 43 Thus the LORD gave to Israel all the land that he swore to give to their fathers. And they took possession of it, and they settled there.
- 44 And the LORD gave them rest on every side just as he had sworn to their fathers. Not one of all their enemies had withstood them, for the LORD had given all their enemies into their hands.
- 45 Not one word of all the good promises that the LORD had made to the house of Israel had failed; all came to pas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레위 자손이 받을 성읍에 대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35:7-8) What was the guideline for the towns that the Levites were to receive? (Numbers 35:7-8)

당신은 당신이 머문 곳 (가정, 일 터, 교회 등)에서 어떻게 영적인 예 배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 니까?

How are you fulfilling your role as a spiritual worshiper in your place of residence (home, work, church, etc.)?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해밀턴밀한인교회, 정찬응(GA) 갈보리연합감리교회, 남규우(HI)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

The Reason Why God's Words Can Be Fulfilled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위는 누이 딤나의 강간 사건으로 형 시므온과함께 세겜 족속을 몰살합니다. 이 일로 "레위의 자손은 가나안 온 땅에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라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의로운 분노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이 일 후에 레위 지파는 주어진 저주의 말씀대로 흩어져야만 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흩어지는 것에 은혜를 더하셔서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며 제사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레위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게르손, 둘째 그핫, 셋째 므라리입니다. 제사장직은 레위의 둘째 아들 그핫으로 이어집니다. 그 핫 아들들도 세 명인데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입니다. 아론과 모세는 아므람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 레위지파도 동일하게 땅을 분배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이미 다른 지파들이 분배 받은 땅에 있는 48개의 성읍을 분배 받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미 자신들이 분배 받은 땅을 다시 내놓아야 했습니다. 특히 유다 지파의 갈렙은 그가 힘써 얻은 헤브론을 내놓습니다. 이처럼 모든 지파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을 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Levi, the third son of Jacob, killed the Shechemites along with his brother Simeon to revenge the rape of his sister Dinah. Because of this, he was cursed, "The descendants of Levi will be scattered throughout the land of Canaan." However, the Levites served God with righteous anger following God's command at the time of the worship of the golden calf at the foot of Mount Sinai. Although the tribe of Levi had to be scattered according to the curse, after the incident of the golden calf, God saw their obedience and gave them the new ordinance that they will teach people God's laws and perform priestly duties. Levi had three sons: Gershon, Kohath, and Merari. The priesthood was followed by Levi's second son, Kohath. Kohath also had three sons: Amram, Ishhar, and Hebron. Aaron and Moses are Amram's children.

Today's text tells that a total of 48 towns were given to the Levites. The tribes of Israel had to give back the land they had already been given. In particular, the clan of Caleb of the tribe of Judah gave the town of Hebron, which they had worked hard for. All the tribes gave without hesitation and obeyed in giving their most precious thing to the Levites. Chapter 21 ends with, "All the good words which the LORD had spoken to the house of Israel were fulfilled, leaving no residue."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489·Thu **24**

2022 November

여호수이가 동쪽 지파들을 돌려보내다

Joshua Sends the Eastern Tribes Back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모든 정복을 마친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지파들을 축복하고 돌려보 냈는데, 이들이 돌아가면서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세운 일로 인해 다 른 지파들의 오해를 받습니다. 결국 오해가 풀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 쁨과 감사가 흐르게 됩니다.

♬ 새218장(통369장)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묵상·**여호수아 22:1**-9

통독 여호수아 22장

- 1그 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 2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 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 3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 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 을 지키도다
- 4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 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 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 5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하고
- 6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 막으로 갔더라
- 7 모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 8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 9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 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 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Reading Insight

After completing all the conquests, Joshua blessed the tribes on the east side of the Jordan and sent them back. They built a large altar by the Jordan River before returning to the east side, but the other tribes misunderstood their intent. Eventually, the misunderstanding was resolved and joy and gratitude flourished in Israel

F Hymn218 Love Your God with Your Heart and Your True Mind

Meditation • Joshua 22:1-9

Reading Plan · Joshua 22

- ¹ At that time Joshua summoned the Reubenites and the Gadites and the half-tribe of Manasseh,
- ² and said to them, "You have kept all that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commanded you and have obeyed my voice in all that I have commanded you.
- ³ You have not forsaken your brothers these many days, down to this day, but have been careful to keep the charge of the LORD your God.
- 4 And now the LORD your God has given rest to your brothers, as he promised them. Therefore turn and go to your tents in the land where your possession lies, which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gave you on the other side of the Jordan.
- ⁵ Only be very careful to observe the commandment and the law that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commanded you, to love the LORD your God, and to walk in all his ways and to keep his commandments and to cling to him and to serve him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 6 So Joshua blessed them and sent them away, and they went to their tents.
- ⁷ Now to the one half of the tribe of Manasseh Moses had given a possession in Bashan, but to the other half Joshua had given a possession beside their brothers in the land west of the Jordan. And when Joshua sent them away to their homes and blessed them.
- 8 he said to them, "Go back to your tents with much wealth and with very much livestock, with silver, gold, bronze, and iron, and with much clothing. Divide the spoil of your enemies with your brothers."
- ⁹ So the people of Reuben and the people of Gad and the half-tribe of Manasseh returned home, parting from the people of Israel at Shiloh, which is in the land of Canaan, to go to the land of Gilead, their own land of which they had possessed themselves by command of the LORD through Mose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제단을 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3-29절)

Why did Reuben, Gad, and the half-tribe of Manasseh build an altar? (22:23–29)

추수감사절을 맞아 감사의 제목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On this Thanksgiving Day, please share why you are grateful.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감람연합감리교회, 이영성(HI)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한의준(HI)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축복이고 감사입니다

Being with the Lord Is a Blessing and Thanksgiving

레위 지파를 마지막으로 땅의 분배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다시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 미리 요단 동편에 땅을 분배 받았습니다. 대신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다른 지파를 위해 요단강 서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설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4만 명을 보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위해 맨 앞에서 싸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명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당부합니다. 그런데 그 당부가 '강해져라', '부요해져라', '건강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잘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힘을 다해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 뿐입니다.

이 말씀을 두 지파 반은 큰 축복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 모두 한마음으로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전쟁의 선봉에 섰었기 때문입니다. 내 지파를 위해서도 아닌, 내 땅을 위해서도 아닌 전쟁인데 그 일을 위해 목숨 걸고 앞에 섰습니다. 손해 보는 것 같고, 억울할 것도 같았던 7년의 시간.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그들은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았습니다. 어떤 축복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모두 이미 축복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Finally, the distribution of the land ended with the tribe of Levi. Now Reuben, Gad, and the half-tribe of Manasseh are allowed to return to the east side of the Jordan River. When they received the allocated land on the east side of the Jordan, these tribes made a promise to God through Moses. They said that they would spearhead the battle for the conquest of Canaan which was west of the Jordan for the sake of other tribes and sent 40,000 men to fight for seven years. Now, Joshua tells them to return after completing all their missions. However, the blessing is not to "get strong," "get rich," or "be healthy." There is only one thing. "Keep God's laws and commandments, and love only God with all your strength,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Two and a half tribes received this word as a great blessing. The reason they were all able to receive it in unity was because they were at the forefront of the wars. They risked their lives, not for their tribes or their land, and stood in the frontline. During the 7 years of war, sometimes it felt like there was no gain or fairness. However, through those years, they were able to see and experience God's power and providence, which was so clear. Therefore, they understood. It meant that being with God was the greatest blessing than any other blessing. All of us who are with God are already walking the path of blessing. On this day of Thanksgiving, we give thanks and praise to the Lord for His steadfast and everlasting presence with us!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П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25

2022 November

여호수아의 고별설교

Joshua's Farewell Addres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지막 고별설교를 전합니다.

♬ 새546장(통399)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묵상·**여호수아 23:1-8**

통독 여호수아 23장

- 1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 2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 3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 4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 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 5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 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 지할 것이라
- 6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 7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 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 8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Reading Insight «

Joshua shared his farewell message with the Israelites.

Hymn546 Standing on the Promises

Meditation • Joshua 23:1-8

Reading Plan · Joshua 23

- ¹ A long time afterward, when the LORD had given rest to Israel from all their surrounding enemies, and Joshua was old and well advanced in years,
- 2 Joshua summoned all Israel, its elders and heads, its judges and officers, and said to them, "I am now old and well advanced in years.
- ³ And you have seen all that the LORD your God has done to all these nations for your sake, for it is the LORD your God who has fought for you.
- ⁴ Behold, I have allotted to you as an inheritance for your tribes those nations that remain, along with all the nations that I have already cut off, from the Jordan to the Great Sea in the west
- ⁵ The LORD your God will push them back before you and drive them out of your sight. And you shall possess their land, just as the LORD your God promised you.
- 6 Therefore, be very strong to keep and to do all that is written in the Book of the Law of Moses, turning aside from it neither to the right hand nor to the left,
- ⁷ that you may not mix with these nations remaining among you or make mention of the names of their gods or swear by them or serve them or bow down to them,
- 8 but you shall cling to the LORD your God just as you have done to this day.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들려준 말씀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6-8절)

What are the points of Joshua's farewell message to the Israelites? (23:6–8)

여러분이 생의 마지막에 자녀들에 게 전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 엇입니까?

What is the most important message you would like to give to your descendents at the end of your life?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 최현규(HI) 아름다운연합감리교회, 오대연(HI)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다시 시작합니다

Let's Start Over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며 살라고 부탁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부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무시할 수도, 타박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바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 입니다. 그도 미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썼습니다. 물론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수와 실패는 모두 그다음에 이어진 교정과 회복으로 보상되었습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여호수아나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기억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그들 모두다시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설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복과 은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합감리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언젠가 여러분들의 삶을 마무리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 오늘 여호수이가 했던 말을 그대로 들려줄 수 있을까요? "좌로나 우로나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라고 말이죠. 우리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Before his passing, Joshua asked the Israelites to not waver right or left but to obey God's commandments. When Joshua asked for these things, the Israelites could not disregard or dispute his request because Joshua lived his own life according to God's commandments. Joshua was a mere human being but he always focused on not turning right or left and tried his best to obey God's commandments. Of course Joshua made mistakes and experienced failures. However, those low moments were compensated by correction and recovery. Both Joshua who was giving the farewell message and all the Israelites begin their new journey of faith again when they remember clearly who God has been for them. Just like the farewell message of Joshua, they trust that God will guide everyone who loves God and follows His commandments with abundant blessings and grace.

Dear family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what kind of lives have you lived so far? Can you say things to your children similar to what Joshua said to the Israelites? Can you say, "Do not turn aside right or left but follow the commandments of God" to your descendents? It is not too late.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26

2022 November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Me and My House Will Serve the Lord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겜으로 불러 마지 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를 섬길 것을 맹세하라고 합니다.

♬ 새435장(통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묵상·여호수아 24:14-28

통독 여호수아 24장

14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 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16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시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7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 하여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18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 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19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나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20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하니

21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아니니이다우리가 여호와를 섬기 겠나이다하는지라

22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 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23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24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25그 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26여호수아가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27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28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Reading Insight

Joshua summoned the leaders of each tribe at Shechem and shared his last words. He asked them to take an oath to serve and obey YHWH God only.

☐ Hymn435 Thou, My Everlasting Portion

Meditation • Joshua 24:14-28

Reading Plan · Joshua 24

- 14 "Now therefore fear the LORD and serve him in sincerity and in faithfulness. Put away the gods that your fathers served beyond the River and in Egypt, and serve the LORD.
- ¹⁵ And if it is evil in your eyes to serve the LORD, choose this day whom you will serve, whether the gods your fathers served in the region beyond the River, or the gods of the Amorites in whose land you dwell. But as for me and my house, we will serve the LORD."
- 16 Then the people answered, "Far be it from us that we should forsake the LORD to serve other gods,
- ¹⁷ for it is the LORD our God who brought us and our fathers up from the land of Egypt, out of the house of slavery, and who did those great signs in our sight and preserved us in all the way that we went, and among all the peoples through whom we passed.
- 18 And the LORD drove out before us all the peoples, the Amorites who lived in the land. Therefore we also will serve the LORD, for he is our God."
- 19 But Joshua said to the people, "You are not able to serve the LORD, for he is a holy God. He is a jealous God; he will not forgive your transgressions or your sins.
- 20 If you for sake the LORD and serve foreign gods, then he will turn and do you harm and consume you, after having done you good."
- 21 And the people said to Joshua, "No, but we will serve the LORD."
- 22 Then Joshua said to the people, "You are witnesses against yourselves that you have chosen the LORD, to serve him." And they said, "We are witnesses."
- ²³ He said, "Then put away the foreign gods that are among you, and incline your heart to the LORD, the God of Israel."
- 24 And the people said to Joshua, "The LORD our God we will serve, and his voice we will obey."
- 25 So Joshua made a covenant with the people that day, and put in place statutes and rules for them at Shechem.
- ²⁶ And Joshua wrote these words in the Book of the Law of God. And he took a large stone and set it up there under the terebinth that was by the sanctuary of the LORD.
- ²⁷ And Joshua said to all the people, "Behold, this stone shall be a witness against us, for it has heard all the words of the LORD that he spoke to us. Therefore it shall be a witness against you, lest you deal falsely with your God."
- 28 So Joshua sent the people away, every man to his inheritanc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후 어떻게 하였습니까? (25-28절)

What did Joshua do after making a covenant with the Israelites? (24:25–28)

당신은 '하나님을 선택한 삶'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What kind of effort do you make to be close to God?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아이에아한인연합감리교회, 이성현(H) 올리브연합감리교회, 김배선(HI)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선택해야 할 순간

The Decisive Moment

오늘 여호수아는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회상하며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시작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신 것도, 광야에서의 모든 일과 가나안 족속을 멸하신 것도,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 것도, 이모든 역사를 만들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고통과 아픔의 순간도 있었지만 그 과정과 시간을 이끌고 만드신 분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찬송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묻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서 분명히 선택해야 할 순간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방신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할 것인가? 세상의 방법을 취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면 복을 내리실 것이요, 하나님을 버리면 복을 내리신 후라도 돌이켜 재앙과 멸망을 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말씀임을 기억했으면 합 니다.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이를 확고히 하십시오.

Joshua reflected on the stories of the Israelites beginning with Abraham to his generation. It was God who called out Abraham, took the Israelites out from Egypt, protected them in the wilderness, conquered the Canaanites, fed the Israelites with the grapes of the vineyard and olive groves, and molded every step of their history. Sometimes it was hard to understand, sometimes there was pain and suffering, but God was the one who led every step and process. The Israelites now understand and praise that everything has been possible in God's grace. For them there would be times to clearly decide whether they would choose YHWH God or pagan gods and whether they would seek God's ways or the world's ways?

One thing is clear. If you are on the side of God, you will be blessed by God. If you depart from God, even though you have received blessings before, you will surely receive punishments and destruction from God. I urge you to remember that this is the same with us today. This declaration continually works in our context. Choose God today, confirm your choice every single day, and make it solid.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Prayer

П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27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 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 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
	\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기다림으로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윤국진 목사(미네소타 복음연합감리교회)

대강절을 맞이하며 기다림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게 됩니다.

대강절이란 이름은 '기다림'이라는 뜻으로 2천 년 전 깜깜한 어둠의 시대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시절과 같은 COVID-19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기다려야 합니다.

소풍을 앞둔 어린아이가 설렘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린 것처럼 말입니다. 기다림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렘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희망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세 상적인 것으로는 암울해진 이 시기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설렘이요, 기쁨인지 되짚어봅니다. 매년 대강절마다 다시 읽게 되는 이해인 시인의 '다시 대강절에'라는 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잃어버린 기다림이 무엇인지. 다시 회복해야 할 기다림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했으면 합니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밝고 둥근 해님처럼 당신은 그렇게 오시렵니까. 기다림 밖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이들의 마음에 당신은 조용히 사랑의 태양으로 뜨시렵니까.

기다릴 줄 몰라 기쁨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이제 우리는 기다림의 은혜를 새롭게 고마워합니다.

기다림은 곧 기도의 시작임을 다시 배웁니다.

마음이 답답한 이들에겐 문이 되어 주시고 목마른 이들에겐 구원의 샘이 되시는 주님 절망하는 이들에겐 희망으로 슬퍼하는 이들에겐 기쁨으로 오십시오.

앓는 이들에겐 치유자로 갇힌 이들에겐 해방자로 오십시오.

이제 우리의 기다림은 잘 익은 포도주의 향기를 내고 목관악기의 소리를 냅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님

우리는아직온전히마음을비우지는못했으나

겸허한 갈망의 기다림 끝에 꼭 당신을 뵙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첫 기다림이며 마지막 기다림이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촛불을 켜는 설레임으로 당신을 부르는 우리 마음엔

당신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 환한 기쁨이 피어 오릅니다."

^{ваед}·моп **28**

2022 November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

Warning of the Day of the Lord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메뚜기 떼의 공격으로 농사를 망친 백성들이 통곡합니다. 그러나 선 지자는 이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에 임할 여호와의 날에 대해 경고합 니다.

♬ 새263장(통197장) 이 세상 험하고

묵상·요엘 1:8-20

통독·요엘 1장

- 8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베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 9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 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 10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 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 11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 12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 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 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 13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베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 리지 못함이로다
- 14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 15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 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 16 먹을 것이 우리 눈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17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 18가축이 울부짖고 소 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 떼도 피곤하도다
- 19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 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 20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Reading Insight ...

The Israelites cried out loud over the crop destruction by great locusts. The prophet warned the Israelites that this destruction was an omen of the judgment day of the Lord.

☐ Hymn263 I Hear the Saviour Say

Meditation • Joel 1:8-20

Reading Plan · Joel 1

- 8 Lament like a virginwearing sackcloth for the bridegroom of her youth.
- ⁹ The grain offering and the drink offering are cut off from the house of the LORD. The priests mourn, the ministers of the LORD.
- 10 The fields are destroyed, the ground mourns, because the grain is destroyed, the wine dries up, the oil languishes.
- 11 Be ashamed, O tillers of the soil; wail, O vinedressers, for the wheat and the barley, because the harvest of the field has perished.
- 12 The vine dries up; the fig tree languishes. Pomegranate, palm, and apple, all the trees of the field are dried up, and gladness dries up from the children of man.
- 13 Put on sackcloth and lament, O priests; wail, O ministers of the altar. Go in, pass the night in sackcloth, O ministers of my God! Because grain offering and drink offering are withheld from the house of your God.
- 14 Consecrate a fast; call a solemn assembly. Gather the elders and all the inhabitants of the land to the house of the LORD your God, and cry out to the LORD.
- 15 Alas for the day! For the day of the LORD is near, and as destruction from the Almighty it comes.
- 16 Is not the food cut off before our eyes, joy and gladness from the house of our God?
- 17 The seed shrivels under the clods; the storehouses are desolate; the granaries are torn down because the grain has dried up.
- 18 How the beasts groan! The herds of cattle are perplexed because there is no pasture for them; even the flocks of sheep suffer.
- ¹⁹ To you, O LORD, I call. For fire has devoured the pastures of the wilderness, and flame has burned all the trees of the field.
- 20 Even the beasts of the field pant for you because the water brooks are dried up, and fire has devoured the pastures of the wildernes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징벌적 재앙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14절)

What was the solution for the Israelites who were experiencing the calamity of God's judgment? (1:14)

당신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그동 안 당신은 어떻게 그 위기를 넘기 셨습니까?

How did you overcome a crisis in the past?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디모인한인연합감리교회, 이병훈(IA) 아이오와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 TBS(I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영적인 위기가 진짜 위기입니다

Spiritual Crisis Is a Real Crisis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가장 큰 위기는 어느 때일까요? 가정, 사업, 자녀, 환경에서 오는 위기를 떠올리면 그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위기는 '영적 침체'입니다. 영적 침체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함에 대한 목마름이 무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요엘서 9절에 보니 "소제와 번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단 한 번도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배가 멈췄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메뚜기떼가 모든 것을 먹어 치워 제단에 드릴 것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그 메뚜기떼를 보내신 분이하나님이심을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메뚜기떼를 보내고, 요엘을 불러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영적 침체'를 끊으라는 신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회복하라."

사랑하는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여러분 앞에 큰 파도 가 옵니까? 영적으로 깨어나셔서, 그 파도를 타십시오. 그 파도는 여러 분을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라고 오는 파도가 아닙니다. 그 파도를 타고 환호성을 지르며 나오는 써퍼(Surfer)가 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When God looks down on us, what would be the greatest crisis? If you think of family, business, or children, there is nothing that would be a mild crisis. For God, the greatest crisis is spiritual downtime. Symptoms of spiritual downtime are being numb to the thirst to pray to and worship God and eventually not being able to sense God's presence. Joel 1:9 says, "Grain offerings and drink offerings are cut off from the house of the Lord." When the Israelites sought God with their faith, the flame was never extinguished on the altar. However, worship has now stopped. The Israelites reason for this was that, "Great locusts have eaten up everything and we have nothing to give as offering." The Israelites have forgotten that God is the one who sent the great locusts. God called the prophet Joel to tell the Israelites to stop "spiritual downtime" and the locusts were the signal for this. God's message is "spiritual revival" for the Israelites.

Dear family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what big wave is ahead of you? Awake spiritually and surf on the waves. The wave is not meant to drown you but to give you the opportunity to win over the wave and become joyous surfers! The only thing we need to do is to awake spiritually!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ক্}ন্তথ • Tue

2022 November

하나님이 땅을 비옥하게 하시다

God Fertilizes the Farth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메뚜기 재앙을 통해 본격적인 재앙이 임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예고된 다음에 터져나온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결국 그들을 회복시키실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되어집니다.

♬ 새279장(통337) 인애하신 구세주여

묵상·요엘 2:18-27

통독・요엘 2장

18그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19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20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의 부대는 동해로, 그 뒤의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21 딱이여 두려워하지 마고 기뻐하며 즐겁워하지어다. 여

21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22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23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 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 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24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25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햇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26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27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Reading Insight «

Through the great locust calamity, the major disaster of God's judgment day was prophesied, and the Israelites cried out to God. God graciously responded to their cry with mercy and restored them.

☐ Hymn279 Pass Me Not, O Gentle Saviour

Meditation · Joel 2:18-27

Reading Plan · Joel 2

- 18 Then the LORD became jealous for his land and had pity on his people.
- 19 The LORD answered and said to his people, "Behold, I am sending to you grain, wine, and oil, and you will be satisfied; and I will no more make you a reproach among the nations.
- 20 "I will remove the northerner far from you, and drive him into a parched and desolate land, his vanguard into the eastern sea, and his rear guard into the western sea; the stench and foul smell of him will rise, for he has done great things.
- 21 "Fear not, O land; be glad and rejoice, for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 22 Fear not, you beasts of the field, for the pastures of the wilderness are green; the tree bears its fruit; the fig tree and vine give their full yield.
- 23 "Be glad, O children of Zion, and rejoice in the LORD your God, for he has given the early rain for your vindication; he has poured down for you abundant rain, the early and the latter rain, as before.
- 24 "The threshing floors shall be full of grain; the vats shall overflow with wine and oil.
- **25** I will restore to you the years that the swarming locust has eaten, the hopper, the destroyer, and the cutter, my great army, which I sent among you.
- **26** "You shall eat in plenty and be satisfied, and prais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who has dealt wondrously with you. And my people shall never again be put to shame.
- 27 You shall know that I am in the midst of Israel, and that I am the LORD your God and there is none else. And my people shall never again be put to sham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마음을 돌이키신 하나님의 구체적 인 응답은 무엇입니까? (19-20절) What was God's tangible response to the Israelites when He changed His heart? (2:19-20)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What are the things we would turn away from and how would we correct ourselves?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에임스사랑의교회, TBS(IA) 콰드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 조항백(IA) 목회자를 위한 기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God Who is Merciful Towards Us.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는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환자에게 힘내라고 말 한마디 건네는 간호사, 식당이나 가게 종업원에게수고한다고 힘내라고 한 마디 건네는 손님, 실수를 해서 걱정하는 사람에게 괜찮다고 위로하는 사람 등. 때때로 누군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무심코 던진 한 마디 말로, 행동으로 따뜻함과 선함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에서도 이런 자연스러운 따뜻함이, 사랑이, 섬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조급함이 때로는 의도치 않게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바꿔야 하고, 지금 당장 해야 한다.' 이 조급함 때문에 이스라엘도 우상을 만들었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했고, 결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참담합니다. 이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기도입니다. 조급할수록 '나의 뜻, 나의 자존심, 나의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살지 못함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고 보니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 다른 상황, 다른 때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기분 나빴어도, 상처받았어도, 힘들었어도 그건 어제니까 말입니다. 조급하게 가지 맙시다.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도하며 갈때, 오늘 18절 말씀처럼 "백성을 불쌍히 여길지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또다른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There are so many people around us who are used as God's instruments of love for others. For example, nurses who encourage patients, customers who encourage employees of stores or restaurants, and those who say "it's ok" when others make mistakes. Sometimes, we say and do something simple to others, and it is received as a message of encouragement and goodness.

I hope that we can experience this kind of heartwarming goodness and encouragement in our church. Sometimes our impatience causes trouble. "We need to change right now, we must do it right now." For the Israelites, their impatience created idols. They focused on something they could see and they focused on results. The consequences of their choices were miserable. Prayer is the only remedy for this kind of impatience. Whenever we are impatient, we focus on "my will, my self, and my strength." Grace leads us to realize that we can not live by our own strength or our own righteousness.

It is also God's grace for us to experience different results, different circumstances, and different times. It is God's grace to start a new day. Even though yesterday was a hard day, the hurt, the agony, and the heartache only belong to yesterday. Let us not be impatient. When we are grateful and enjoy today's grace, God's new work of grace will begin according to Joel 2:18. "The Lord will take pity on His people."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ARSI-Wed

2022 November

그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God Who Answers at That Tim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여호와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임이 선포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서는 그의 백성들에게는 피난처가 되고 영원한 거처가 될 것임을 약속해 주십니다.

♬ 새322장(통357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묵상·**요엘 3:14-21**

통독・요엘 3장

14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15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16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17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사람이 그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18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 나와서 싯딤 골짜기에 대리라

19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 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20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21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흘림 당한 것을 갚아 주지 아니 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 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Reading Insight

It was declared that the frightening judgment day of the Lord would come. However, God promised the Israelites that He would be their forever refuge and dwelling place.

☐ Hymn322 Gather Us In, Thou Love

Meditation • Joel 3:14-21

Reading Plan · Joel 3

- ¹⁴ Multitudes, multitudes, in the valley of decision! For the day of the LORD is near in the valley of decision.
- 15 The sun and the moon are darkened, and the stars withdraw their shining.
- 16 The LORD roars from Zion, and utters his voice from Jerusalem, and the heavens and the earth quake. But the LORD is a refuge to his people, a stronghold to the people of Israel.
- 17 "So you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your God, who dwells in Zion, my holy mountain. And Jerusalem shall be holy, and strangers shall never again pass through it.
- 18 "And in that day the mountains shall drip sweet wine, and the hills shall flow with milk, and all the streambeds of Judah shall flow with water; and a fountain shall come forth from the house of the LORD and water the Valley of Shittim.
- 19 "Egypt shall become a desolation and Edom a desolate wilderness, for the violence done to the people of Judah, because they have shed innocent blood in their land.
- **20** But Judah shall be inhabited forever, and Jerusalem to all generations.
- ²¹ I will avenge their blood, blood I have not avenged, for the LORD dwells in Zion."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온 이들에게 주 신 회복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18절)

What was the promise for those who returned with repentance? (3:18)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 이 주님을 닮은 모습일까요? How can we imitate Jesus Christ in our daily lives?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갈릴리연합감리교회, 엄모성(IL)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 김윤기(IL)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몸에 베인 배려

Hospitality Becomes the Second Nature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두레, 시몬, 블레셋들을 향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이스라엘과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니 모든 열방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어쩌면 순간 한나님의 뜻과 다른 모습이 보였던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생각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11월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닮은 모습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남극의 황제펭귄은 영하 70°C의 추위와 눈보라를 피하기 위해 수천 마리가 한곳에 모여 몸을 서로 맞대어 추위를 이겨낸 답니다. 그러다 보니 안쪽의 온도가 바깥쪽보다 무려 10°C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따뜻한 안쪽의 펭귄이 바깥쪽으로 무리를 헤치며 나온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깥쪽 펭귄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된다죠. 이 과정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진답니다. 바깥쪽 펭귄이 추위를 피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닌, 따뜻한 안쪽의 펭귄이 추위에 떨고 있을 동료를 배려하기에 바깥으로 나오는 모습. 동물을 통해서도 진정한 배려가 무엇인지 배웁니다.

Today's text has God's words of judgment for Tyre, Sidon, and Philistia who were against the Israelites (God's people). These words to the Israelites still apply for us today. Or we can say it is for every nation. Whoever is against God could be referring to all of us whenever we turn our back from God and do our own will. If we have God in our heart, we know that we will not be against God. It reminds me of the familiar praise song, "The Lord is in me, the Lord is in me, He resides in me..." As we conclude the month of November, I pray that we would resemble Jesus Christ more.

The King penguins In South Georgia, Antarctica gather together in the thousands to share their body temperature to overcome the extreme cold (lower than minus 158 F). Amazingly, the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inside of the penguin circle and outside is 50 F. When some penguins have warmed themselves, they drag themselves to the outside of the circle so those who are outside the circle can get in. This is an ongoing progress. Instead of the penguins outside the circle trying to get inside, the penguins inside the circle move outside so the outsiders can survive. This is a lesson from the animal world for us. A caring attitude towards others should become our second nature.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하루 \$1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

\$1 for every day, we are planting the church of Jesus Christ!

한인연합감리교회 교회개척 운동 Nehemiah Project-Church Planting Movement 느레미야 \$ 1 운동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교회를 세웁니다 We plant a church at a time 미래를 준비합니다 We prepare for future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God is leading our way

온라인 헌금 Online Giving

□한달 \$ 10, \$ 20, \$ 30, \$ 50 per month □하루 \$ 1 per day □한달 \$ 30 per month

여러분의 1불 헌금은 한인연합감리교회 개척을 위해 사용합니다.

Your \$1 offering will be used for church planting projects of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es

연합감리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Your offering will support for futur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 한어회중 Korean speaking congregation 영어회중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 차세대회중 Next generation ministry
- 다인종사역 Multi-ethnic ministry

느헤미야 운동의 교회개척 사역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How can we participate into church planting projects for Nehemiah project?

- 가정에서 함께 드립니다. You may give as a family.
- 자녀들과 함께 매달 드립니다. You may share with your children.
- 신용카드로 헌금합니다. You would give with your credit card.
- 느헤미야 운동을 통해, 비과세기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This gift can be listed as a tax-deductible gift for your tax report,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Check payable to Nehemiah Project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본부 Nehemiah Project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Email contact: kumcdevotion@gmail.com

2022년 11월 기쁨의 언덕으로

소그룹 교재

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들어쓰심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 첫째 주 소그룹 모임 강하고 담대하라 | 여호수아 1:1-9

● 둘째 주 소그룹 모임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까? | 여호수아 7:22-26

● 셋째 주 소그룹 모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 여호수아 14:6-15

● 넷째 주 소그룹 모임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 | 요엘 1:8-20

첫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여호수아 1:1-9

강하고 담대하라



새 347장(통382장) 허락하신 새 땅에 새353장(통391장) 십자가 군병 되어서 새357장(통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01 여는 질문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나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올 한 해 나는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일들을 얼마나 잘 감당했을까요?

02 본문이해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 요단강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후, 어떤 누구도 대신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자리가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거쳐 모세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이어져 온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했던 여호수아였지만, 사실 그가 가진 두려움은 외부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 백성을 잘 이끌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근심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만 세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특히 세 번째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신신당부하고 계십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부족과의 전쟁에 임할 상황속에서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입니다. 지금 이 세상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들이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아야 하고, 가나안 땅은 내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의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이를 은혜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03 말씀속으로

- 1.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3-4절)
- 2.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7-9절)

04 삶속으로

- 1. 여러분은 가정, 교회, 직장 등에서 어떤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계십니까?
- 2. 지금 우리들이 점령할 가나안은 누구(무엇)입니까?

05 암송구절 여호수아 1:8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06 자녀와나눔

당신은 지금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둘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본문 여호수아 7:22-26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까?



새 267장(통201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새264장(통198장) 정결하게 하는 샘이 새265장(통199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01 여는 질문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02 본문이해

우리는 믿음으로 가던 이스라엘을 통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요단 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아서 무너뜨린 것, 이는 믿음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아간의 죄악이 공동체에 들어오자, 여호수아까지도 영적으로 흔들립니다.

아이라는 곳은 여리고에 비하면 작고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정탐한 이들은 걱정할 것 없다며 2~3천명만 보내도 승리할 거라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전쟁만 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마저 녹아버렸습니다. 이전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듣고 두려워하고 마음이 녹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싸울 용기와 의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여호수이는 무엇이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앞에 엎드려 한탄하며 기도합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9절) 이때 하나님은 기도하던 여호수이를 깨우십니다. "네 안에 있는 악을 먼저 제하라." 하나님 께서 여호수이를 보면서 답답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이제 그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너희 가운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물건을 탐내어 몰래 취하여 도적하고 숨기고 있다고 하신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기도를 아무리 한다 한들, 그 기도의 응답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간의 죄를 문제 삼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는 그만 망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 딸들을 포함한 그의 모든 식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이 소유한 짐승들마저 죽임을 당합니다. 전쟁에서 패해 이스라엘 군인 36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서도 제하여야 할 악을 제해야 합니다. 그래도 여호수아를 비롯해 기도하던 이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죄가 있음을 알게 하셨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 바뀌지 않으면, 죄악을 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는 있어도, 약속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제할 것을 제하는 것이 결국 승리하는 길입니다.

03 말씀속으로

- 1. 이스라엘이 아이성 싸움에서 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1-12절)
- 2. 아이성 싸움에서 패한 후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불평을 하였습니까? (7절)

04 삶속으로

- 1.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 2. 지금 우리 공동체(가정. 교회. 나라)안에 제거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05 암송구절 여호수아 7:13a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06 자녀와나눔

아무도 모르게 저지른 잘못을 부모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 않았던가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셋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여호수아 14:6-15**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새545장(통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새546장(통399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새549장(통431장) 내 주여 뜻대로

01 여는 질문

당신은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까?

02 본문이해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에 의해 분배된 요단 서편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서편 땅들은 이미 동편 땅을 분배 받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아홉 지파 반에 게 분배됩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 나눌 때에 유다 지파가 첫 번째 선택권을 갖습니다. 이때 유다 지파를 이끌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다름 아닌 45년 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했던 '갈렙'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 85세, 나이로 보나 공적으로 보나 그는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명한 땅은 너무나 의외의 땅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로 삼손도 어찌하기 어렵다던 기골이 장대하고 강인한 아낙 자손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그러니 이 헤브론을 분배 받는 지파는 분명 그들과 힘겨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는 왜 첫 번째 선택권이 있음에도 남들이 가장 싫어한 곳을 선택했을까요? 갈렙이 그 무서운 아낙 자손을 보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갈렙 역시 남들과 똑같이 상황과 현실을 보았지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현실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즉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보다 어떤 눈으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45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믿음의 눈으로 아낙 자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갈렙을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

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민 14:24)

오늘 갈렙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수 14:10)"라고 고백합니다. 즉, 갈렙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왔던 것이 아닙니다. 그를 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임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택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분명 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선택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14-15절)

03 말씀속으로

- 1. 요단 서편의 땅 분배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1절)
- 2. 45년 전 갈렙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9절)

04 삼속으로

- 1. 선택의 순간에서 내가 기준으로 삼은 것은 무엇입니까?
- 2. 당신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05 암송구절 여호수아 14:12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 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 다하니

06 자녀와나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느껴진 적이 있나요?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



새251장(통137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새254장(통186장) 내 주의 보혈은 새255장(통187장) 너희 죄 흉악하나

01 여는 질문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02 본문이해

요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요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구약성경만 해도 요엘이라는 사람이 열두 명이나 등장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요엘서의 저자와 동일한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정확히 언제 활동한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 정치적인 암울한 상황과 맞물려 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도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곧을 것인데, 그날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니라 환난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주어진 이 메시지는 지금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가정, 사업, 자녀, 환경에서 오는 위기를 떠올리면 그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위기는 '영적 침체'입니다. 영적 침체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함에 대한 목마름이 무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요엘서 9절에 보니 "소제와 번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단한 번도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배가 멈췄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먹어 치워 제단에 드릴 것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그 메

뚜기 떼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메뚜기 떼를 보내고, 요엘을 불러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영적 침체'를 끊으라는 신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회복하라.' 사랑하는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여러분 앞에 큰 파도가 옵니까? 영적으로 깨어나셔서, 그 파도를 타십시오. 그 파도는 여러분을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라고 오는 파도가 아닙니다. 그 파도를 타고 환호성을 지르며 나오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나야 합니다.

03 말씀속으로

- 1. 징벌적 재앙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14절)
- 2. 요엘은 이 거대한 메뚜기 재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15절)

04 삶속으로

- 1. 당신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그동안 당신은 어떻게 그 위기를 넘겼습니까?
- 2. 당신의 인생에서 예배가 멈췄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때 당신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05 암송구절 요엘1:3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06 자녀와나눔

여러분은 매주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셨나요? 만약 교회를 빠진 적이 있다면 왜 빠지게 되었나요?



Be Strong and of Good Courage



We are Bound for Canaan Land Am I a Soldier of the Cross Encamped Along the Hills of Light

01 Opening Discussion

November is the month of Thanksgiving. What am I grateful for? How well have I done what God expected me to do this year?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After living slavishly in Egypt and having been disciplined through the hardship of the wilderness for 40 years, the Hebrew people encamped before reaching the land of Canaan. After the death of Moses, the leader of a great nation, the position that no one seemed to be able to fill was given to Joshua. The first task given to him was to "enter the land promised by God." The land was a promise from God that had been invariably carried on from Abraham, Isaac, Jacob, to Moses.

Joshua, who had already experienced God's work and grace through Moses, kept his fears hidden from others. His fear probably was, "Can I lead this people well?" God's response to him was, "Be strong and bold, be not afraid." This phrase is repeated three times in today's text alone. In particular, the third one is accompanied by, "Isn't that what I have commanded you?" God is encouraging Joshua not to be discouraged. It was a statement given in the context of the war against the seven tribes in the land of Canaan, but more fundamentally, it required a strong trust in and obedience to God.

"Keep and do all the laws which have commanded you, and do not bias them either right or left." The law is defined in one phrase "to be the holy people of God."

Why did God say these words to those who are now facing war with the world? Because they needed to know.

I must know that it is God who raised me up, that the war belongs to God, and that the land of Canaan is not occupied by me, but that it is given by God. In a world where there are many people who forget God's grace, we know that everything is from God, that we will receive it with gratitude and confess it with grace.

13 Into the Word

- 1. Where and to what extent is the Promised Land granted to the Israelites? (1:3-4)
- 2. What was God's solution to Joshua's fear? (1:7-9)

04 Into our life

- 1. What spiritual leadership do you have in your home, church, workplace, etc.?
- 2. Who (what) is Canaan that we are going to occupy now?

05 Memory Verse Joshua 1:8

This Book of the Law shall not depart from your mouth, but you shall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so that you may be careful to do according to all that is written in it. For then you will make your way prosperous, and then you will have good success.

Of Sharing with your children

What are you most afraid of? How do you pray to God about that fear?



Has the Problem of Your Sins Been Resolved?



'Tis the Promise of God When I Saw the Cleansing Fountain Christ, Our Redeemer

01 Opening Discussion

What is the sin that you are currently struggling with?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We saw the amazing guidance God provided to Israel when they marched in faith. Crossing the Jordan River, marching around the city of Jericho for 7 days, and seeing it being destroyed were done by faith and through the grace of God. However, when Achan's sin entered the community, it shook even Joshua's trust in the Lord.

Ai is a small city compared to Jericho. The spies said they had nothing to worry about and were confident that they would win with just two or three thousand men. But they lost the war. Not only did they lose the war, but their hearts melted in fear as well. Previously, it was the Canaanites who feared even hearing the name of God of Israel. But now the tables have turned and it was the Israelites who lost the courage and the will to fight again.

Up to this point, Joshua did not know what the underlying problem was. Joshua and the elders fell on their faces before the ark of the LORD, lamented and prayed. "The Canaanites and the other people of the country will hear about this and they will surround us and wipe out our name from the earth. What then will you do for your own great name?" (7:9) In response, God said, "Israel has sinned; they have violated my covenant, which I commanded them to keep." It seemed that God was frustrated with Joshua and told Joshua to acknowledge the sin among them instead of praying in ignorance. Someone violated God's command, stole things, hid them, and lied about it.

We have to know that without facing and repenting of our sins, there will be no answer to our prayers. When we see God taking Achan's sin seriously, it is clear that God will never take sins lightly. What was the essence of the sin here? It was not keeping God's Word and command. The punishment of Achan's sin did not stop with him but extended to all of his family members, including his wife, sons, and daughters. Even their animals were killed. From this war, there were 36 deaths of Hebrew soldiers and many more were wounded.

Dear beloved, we need to get rid of the evil within us, our homes, and from our churches. When Joshua and the elders started to pray, God provided a new opportunity by letting them know of their sins. You may think you can be under the grace of God even if you sin, but unless you get rid of your sins, the promise of God will not be fulfilled for you. Now is the time to decide. Even if it hurts or even if it is difficult, removing what needs to be removed is the way to victory in God.

03 Into the Word

- 1. Why did Israel lose the battle with Ai? (7:11–12)
- 2. After losing the battle of Ai, what complaint did Joshua make before God? (7:7

04 Into our life

- 1. How did you solve the problem of sin that made it impossible to receive God's promises?
- 2. What sins must be removed in our community (family, church, country) now?

05 Memory Verse Joshua 7:13a

Get up! Consecrate the people and say, 'Consecrate yourselves for tomorrow;

Of Sharing with your children

Did your parents already know of the wrongdoings you tried to hide? How do you think they found out? How do you pray to God about that fear?



Give Me This Mountain



Down in the Valley Where the Mists of Doubt Arise
Standing on the promises
My Jesus, as Thou Wilt

01 Opening Discussion

When did you fully rely on God?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Today's text is the story of the territory distribution regarding west of the Jordan. These western lands were divided among the nine and a half tribes of Israel, except for Reuben, Gad, and the half–tribes of Manasseh, which already received their allotment east of the Jordan. By lot, the tribe of Judah chose first. At this time, a man who was leading the tribe of Judah appeared, and he was none other than Caleb, who explored Canaan with Joshua 45 years ago. Now that he was 85 years old, and respected both in age and reputation, he was worthy of receiving the best land. However, the land he chose was the least expected choice, "Hebron." The older name of Hebron is "Kiriath Arba," and it is the land inhabited by the descendants of Anak, who were physically massive and powerful and whom even Samson had a hard time dealing with.

Consequently, the tribe that received Hebron would have no choice but to engage in a difficult battle against them. In spite of that, Caleb asked for the land. Why did he choose a place that others disregarded, even though he had first choice? Was it because Caleb never saw the dreadful descendants of Anak? No. Caleb also saw reality with his own eyes but he had the eyes of faith that saw the most powerful God. He had the eyes of faith that others didn't have and saw God the Almighty with his eyes of faith. In other words, what is most important is how you see rather than what you see. Caleb was seeing the descendants of Anak with the same eyes of faith that he had 45 years ago.

He was still trusting the power of God, trusting that God would do the same again for his tribe.

This is what God says about Caleb. "But because my servant Caleb has a different spirit and follows me wholeheartedly, I will bring him into the land he went to, and his descendants will inherit it" (Num 14:24).

In today's scripture, this is what Caleb says about his life, "God made me alive!" (Joshua 14:10) In other words, Caleb did not live a life relying on his own power. He always acknowledged that it was God who made him live and endure. Caleb was certain that such a God would help him occupy the Promised Land.

His decision was truly outstanding. His choice was definitely a good one. The Bible gives an account about the result of his decision. "So Hebron has belonged to Caleb son of Jephunneh the Kenizzite ever since, because he followed the Lord, the God of Israel, wholeheartedly. (Hebron used to be called Kiriath Arba after Arba, who was the greatest man among the Anakites)" (14:14–15).

13 Into the Word

- 1. How was the distribution of the territories west of the Jordan done? (14:1-2)
- 2. What was God's promise to Caleb 45 years ago? (14:9)

04 Into our life

- 1. At the moment of decision, what guides your decision making?
- 2. What is God's promise you are holding onto?

05 Memory Verse Joshua 14:12

"Now give me this hill country that the Lord promised me that day their cities were large and fortified, but, the Lord helping me, I will drive them out just as he said."

Of Sharing with your children

Was there a time you felt that God was with you?



The Warning on the Day of the Lord



Marvelous Grace of Our Loving Lord
I Hear Thy Welcome Voice
Tho' your sins be as scarlet

01 Opening Discussion

How is your soul now?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The meaning of the name Joel is "YHWH is God." In Israel, there are so many people who have the name "Joel." In the Old Testament, there are 12 people who have the name Joel but they are not the author of the Book of Joel. We do not know when the prophet Joel was active or who he was, but one certain thing is that it must have been a time of political turmoil and darkness. Joel's message is very simple. If the Israelites do not repent and do not return to the Lord, the day of the Lord, the day of judgment will come upon them as a judgment. The day of the Lord would not be a joyous or happy day, but would be disastrous.

This message at a time of crisis speaks to us today. What kind of crisis are you going through? If you think of family, business, circumstances, and children, there is nothing that would be a mild crisis. For God, the greatest crisis is spiritual downtime. The symptoms of spiritual downtime are being numb to the thirst to worship God and pray to God and eventually unable to sense God's presence. Joel 1:9 says, "Grain offerings and drink offerings are cut off from the house of the Lord." When the Israelites sought God with their faith, the altar flame was never extinguished. However, the worship has stopped now. The Israelites' reason is that "Great locusts have eaten up everything and we have nothing to give as offering." The Israelites have forgotten that God is the one who sent the great

locusts. God sent the locusts and called the prophet Joel to tell the Israelites to stop "spiritual downtime" and the locusts were the omen for this. The message of God is "spiritual revival" for the Israelites.

Dear family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what kind of big wave comes before you? Awake spiritually and surf on the wave. The wave is not meant to drown you but give you the opportunity to win over the wave and become joyous surfers! The only thing we need to do is to awake spiritually!

03 Into the Word

- 1. What was the solution given for the Israelites who were about to experience the calamity of God's judgment? (1:14)
- 2. How did the prophet Joel respond to the great locust disaster? (1:15)

04 Into our life

- 1. How did you overcome a crisis in the past?
- 2. Have you ever stopped worshiping God? How was your spiritual life then?

05 Memory Verse Joel 1:3

Tell it to your children, and let your children tell it to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to the next generation.

Of Sharing with your children

Do you worship at church every Sunday? Why might you miss Sunday worship?

MISSIONARY OF THE MONTH



Advance: #13974Z D
Country: United States

Choi, Eun Ha

Rev. Eunha (Grace) Choi is a missionary with the Board of Global Ministries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Currently, Grace serves as a Missionary in Residence (MIR) at the headquarters of Global Ministries in Atlanta, GA, USA.

As an active missionary, the role of MIR is to be a liaison between Global Ministries and its missionary community. The work of MIR is pastoral, listening to and caring for missionaries directing their diverse concerns to Global Ministries, and organizational, advocating for missionaries.

Before becoming MIR, Grace was a missionary in the Philippines for 18 years. At first, she worked as a youth coordinator of the Philippines Annual Conference. Later, she served at Harris Memorial College, a deaconess training center for Christian education. At Harris, she was a community health coordinator at an indigenous community and urban

informal settlement area. Also, she taught music courses and led the school choir.

Grace says, "When I was a teenager, I read many missionary stories, and I wanted to be a missionary." So, she entered a nursing college to prepare herself to be a missionary. Later, however, she forgot about it and pursued a worldly success. Then suddenly, she was stricken with an illness doctor could not diagnose. Grace confesses, "Through the illness, my mind was getting humble. I began to long for God and recovered my dream to be a missionary." She continues, "Ever since I became a missionary, I have always affirmed that mission is not about sacrificing myself for God, it is to participate in God's mission trusting in the Lord who sacrificed himself for me.

A native of South Korea, Grace earned 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 from Yonsei University in Seoul, and Master of Divinity from th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in Gwangnaru, Seoul. In the Philippines, she studied voice performance at the University of Santo Tomas.

A full member of the Philippines Annual Conference, Grace is married to Jae Hyoung Choi, also a GBGM missionary. They have two sons, Soo Hoon and Ji Hoon.

Contactinfo: echoi@umcmission.org

사귐의 기도 23

김영봉목사 와싱톤사귐의교회, VA

"사랑의 기도의 6가지 열매



어느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에 대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 22:37-40)"

여기서 "그와 같으니"라는 말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중요성에서 같다는 뜻이다.

유대인들에게 전해 온 모든 종교적 가르침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압축 된다는 말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대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에 앞서야 한다고 믿었다. 예수님은 이 생각을 겨냥해 "그와 같으니"라는 말씀을 덧붙이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행위로 이어져야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신랄하게 책망하셨다. 또한 하나 님에 대한 사랑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랑 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이웃 사랑의 허위성에 대



해서도 고발하셨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뿌리를 두지 않은 이웃 사랑은 자신의 공로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 속으로는 더러운 이기심을 만족시키면 서 겉으로는 거룩하게 희생하는 척하는 위선이다. 예수님은 이러한 허위와 위선을 가장 싫어하셨다. 그렇기에 '사랑'이라는 한마디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마디로 요약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기도'와 '섬김'에 전념하셨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 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과정이 었다. 즉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눔으로 그분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그분께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는 과정이다. 이 사랑의 교류는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고, 더러운 감정들을 몰아내며, 열정을 일으킨다. 사랑처 럼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게 또 있을까? 예수님은 이 사랑의 교류가 무엇보다 중 요하다고 믿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기도에 전념하셨다.

이러한사귐의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의식을 넓고 예민하게 만들어 준다. 기도를 통해 기도자는 다른 사람, 다른 생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들의 아픔에 더욱 예민해진다. 기도자는 자신이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생명과 하나임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은 다른 생명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된다. 나의 아픔이 다른 사람의 아픔이요, 다른 생명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임을 자각한다.

예수님은 새벽까지 홀로 기도하시며 모든 인간과 수많은 생명의 신음 소리를 들으셨을 것이다. 이러한 영적 연대야말로 그분의 뜨거운 사랑 실천의 뿌리였다.

낮 동안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설교, 치유, 위로하는 봉사에 전념하셨다. 영적 황홀경에 빠져 마냥 앉아 있지 않으셨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말씀과 손길을 기다리고 있음을 아셨기에 여러 마을로 다니며 사랑을 실천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면 세상 모든 생명과 사물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진다. 특히 고통받고 있는 생명들, 진리를 모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 상처받은 영혼들의 아픔을 예민하게 느끼고 사랑하게 된다. 이 사랑의 힘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봉사하셨다.

바울도 이 진리를 알았다. 그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가장 먼저 '사랑'을 꼽았다.(갈 5:22)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충만한 교제를 나눌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인격적인 변화를 가리킨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과의 사귐이므로

성령의 열매는 곧 기도의 열매인 셈이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도 사랑을 최고의 것으로 지목했다.(고전 13장) 다른 은사들은 완전한 것이 오기 전까지만 필요하다. '완전한 것'이란 바로 사랑이다. 다른 은사들은 영성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사라진다. 하지만 사랑의 은사는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추구해야 한다.

사랑의 경지는 너무 넓고 깊어서 일생 동안 다 알 수도 이룰 수도 없지만, 그 높은 경지가 오히려 우리의 의지를 불러일으킨다. 노력으로 사랑의 능력이 커지면 사랑에 대해 더 깊은 깨달음을 얻는다. 최선을 다해 사랑한다 해도,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했음을 깨닫는다. 영성이 깊어질수록 삶은 고매한 차원으로 나아가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감각은 더 예민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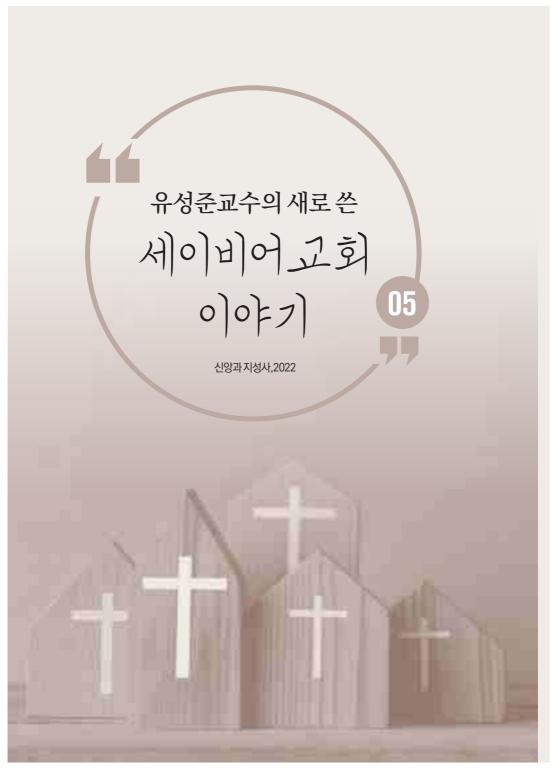
사랑은 예술처럼 우리 일생 동안 완성할 수 없다. 예술가들이 끊임없이 예술 혼을 불태우듯,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 하나님 안에서 정진 한다. 따라서 한 사람의 기도와 사랑의 수준은 같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드린 기도는 이를 입증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엡 3:17-19)

편집자주

2021년 김영봉 목사의 '사귐의 기도(IVP)' 시리즈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성도들에게 '바른 기도'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이 체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리즈를 연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김영봉 목사님과 IVP-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기쁨의언덕으로 EdSant Hill



세이비어교회의 핵심사역원리 2

세이비어교회의 대표적인 지역사회사역 탐방

1947년 설립된 세이비어교회는 철저한 입교 과정과 고 도의 훈련과정을 통하여 150명 정도의 교인 수를 유지하 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로 잘 알 려져 왔다. 세이비어교회 사역들의 핵심적인 사역 원리와 실제에 대해 나누기 전 매년 한국서번트리더십훈련원에 서 탐방하고 있는 세이비어교회의 대표적인 몇 가지 사역 에 대해소개하고자하다.



토기장이의집

토기장이의 집은 1960년 세이비어교회에서 가장 처음 지역사회 사역을 시작한 곳이며 요즘 한국교회에 유행하고 있는 카페교회의 원조이다. 워싱턴 D.C.의 백악관 북쪽으로 2마일 정도 떨어진 아담스 몰간 지역에 속해 있으며 서점과 카페, 모임 및행사장소 등을 포함하고 있다. 토기장이의 집은 비종교적인 사람들이 모여 종교적인 깊은 대화의 장을 가능케 하였고, 창조적인 표현이 일어나 깊은 변화가 이곳에서부터일어나게 되었다.

세이비어교회의 여러 신앙공동체와 미션 그룹이 토기장이의 집을 통해 시작되었고 오늘날도 그 사역이 계속되고 있다. 미래교회의 방향에 대해 탐구하는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이 세이비어교회를 방문하여 이 토기장이 집에서 세이비어교회의 고든 코스비 목사와 다른 사역자들과 함께 대화하며 미래목회의 많은 영감과 통찰력을 얻는 장소이기도 하다.

최근 토기장이의 집은 지역이 개발되며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낙후된 도심이 활성화되며 외부인이 유입되고, 임대료 상승 등으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의 영향으로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문을 열었다.

토기장이의 집은 점심시간에만 문을 여는 식당 겸 카페이다. 이곳은 세이비어교회 가 지역사회사역의 모판 역할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낮에는 카페로 사용하고 카페 뒤편에 모임 장소를 준비하여 점심 모임을 갖기도 하고 그 외 시간은 모임 장소로 사 용되고 있다.

교회 사역과 관련된 공연들, 소그룹 모임과 예배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세상의 한복파에 세워져 지역에 담이 없이 다가가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이곳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거룩한 장소임에 틀림없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1954년부터 평생을 교회를 위해 봉사하셨고 1960년 토기장 이의 집이 시작될 때부터 자원봉사하신 닷(Dot) 할머니는 1950년대 초에 부부가 함 께 200에이커의 데이스프링 침묵기도 수양관 대지를 구입하여 교회에 기증한 분이 기도 하다. 닷 할머니가 세이비어교회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교회를 소개하며 꼭 들려 주는 이야기가 세이비어교회의 사역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

"딱따구리 한 마리가 열심히 나무를 쪼고 있었어요.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딱 따구리는 나무를 쪼고 있는데 갑자기 마른 벼락이 치고 그 나무는 반으로 쪼개지게 되 었어요. 이것을 보고 놀란 다른 동물들이 딱따구리에게 물었습니다. 너에게 무슨 힘 이 있어 이 큰 나무를 쪼갤 수 있니? 그러자 딱따구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난 단지 나에게 맡겨진 일을 매일 성실히 했을 뿐이야.'"

닷 할머니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고 지난 75년의 역사를 통해 세이비어교회의 사역의 현장 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기도 하다.

"고든 코스비 목사는 이제 전설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와 같은 침례교 전통 에서 신학을 수련하였지만, 모든 교단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는 나로 하여금 근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미션의 사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미션은 깊은 묵상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학자이자 목사인 본 훼퍼를 정치적 인물로 아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피상적 이해일 뿐입니다. 그는 무엇보다 영성과 묵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코스비 목사는 나 에게 본 훼퍼를 연상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이비어교회의 토기장이의 집 카페에서 그와 나눈 차 한 잔의 대화는 나에게 소 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의 묵상센터(데이스프링 침묵수양관)가 필그림하우스를 만드는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세이비어교회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한국서번트리더십훈련원의 기여가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함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코스비 목사와 세이비어교회 비전이 한국교회의 피상성을 극복하는 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서번트 리더십 학교(Servant Leadership School)

최근에는 구원 학교(Soteria School)로도 불리는 서번트리더십학교가 있는 "축제센터(Festival Center)" 앞에는 "가르치는 예수(Teaching Jesus)" 청동 동상이 서 있다. 로비로 들어서면 왼쪽에 위치한 작은 채플이 눈에 들어온다. 요나가 갇혔던 고래 뱃속을 연상케 하는 진한 파란색 스테인드글라스로 장식된 이 공간엔 이 공동체의 영성을 보여주듯 고요함이 머물고 있다. 이곳에서는 주간 중 매일 정오기도회가(Noon Time Prayer Meeting) 열리는 장소이기도 하다.

1층은 서번트리더십학교의 과정들이 진행되는 강의실과 강당, 식당 겸 친교실이 있고 2층은 잘 꾸며진 사무실들이 있는 시설이었는데, 중독사역이 시작되면서 28일 집중 프로그램(28 Days Intensive Care Unit)을 위한 기숙사 시설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다. 3층은 지금은 사무실들이 있고 게스트 하우스가 있던 시절에는 헨리 나우 웬이 안식년에 이곳에 머물며 서번트 리더십의 중요한 통찰력을 주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Life of the Beloved)"를 집필한 장소이기도 하다.

서번트리더십학교는 본회퍼의 지하신학교(Underground Seminary) 또는 미래 목회의 대안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신학교(People's Seminary)라고 알려져 있다. 이 학교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현대사회의 이슈에 대한 신학적 접근을 시도하도록 영감을 준다. 성서, 공동체 신학, 서번트 리더십, 소명, 영성과 기도, 소외자들과 함께 하는 삶과 사회적 이슈와 문제점들을 다루는 과정들을 제공한다. 나는 1994년부터 10년 동안 서번트리더십학교를 통해 이 주제들을 함께 탐구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학위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참여자들이 어느 신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는 실제적 인 미래교회에 대한 실제적인 통찰력을 얻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3 데이스프링 침묵기도 수양관 (Dayspring Silence Retreat Center)

1950년대 초에 교인들이 헌금하여 구입한 210에이커의 드넓은 대지 위에 모임 장 소인 "Lodge"와 개인숙소인 "Inn" 오직 두 채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Lodge는 벽 난로와 작은 도서관, 부엌 및 식당이 있는 멋진 거실로 구성되어 있고 바깥쪽은 자유 스럽게 앉아 책도 읽고 기도도 할 수 있는 의자들이 놓여있다. 숙소인 Inn은 숲속에 자리 잡고 있고 침대와 의자, 탁자 및 세면대가 있는 18개의 혼자 머물수 있는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이비어교회의 각 신앙공동체(Faith Community)들은 매년 의무적으로 3박 4 일의 대침묵(Great Silence)영적 침묵기도 수련회에 참석하며 매달 주간이나 주말 에 침묵기도에 대해 배우고 함께 기도하는 세미나나 프로그램들이 Lodge에서 진행 되다

데이스프링은 그 장소 자체가 주는 쉼과 영적인 감동이 있는 장소이다. 저녁에는 반딧불들이 흐드러지게 날아다니고 낮에는 사슴과 노루들이 뛰어다니는 환상적인 모습도 볼 수 있다. 세이비어교회의 설립자인 고든 코스비 목사님은 소천 후 고인의 유지대로 시신을 화장하여 이곳 데이스프링 수양관 연못에 뿌렸다고 한다.

이곳을 방문할 때마다 고요한 가운데 자신의 영적순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각자 자유스럽게 아침 시간과 저녁 시간에 각자의 처소에서 또는 산책하며 갖는 시간들은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시간들이었다. 또한 고든 코스비 목사 부부와 헨리 나 우웬, 엘리자베스 오코너 등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곳에서 영감을 얻어 일생을 헌신한 자리에 함께 한다는 감동도 잊을 수가 없다.

데이스프링은 세이비어교회를 통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교인들의 비움과 채움의 영성을 위한 피정(Retreat) 장소이다. 210에이커 넓은 들판에 사슴이 뛰놀고, 다람쥐들이 오고 갈 만큼 넓은 규모의 숲은 우리 마음과 영혼을 충분히 쉴 수 있게 하는 힐링의 장소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세상살이의 고단함과 봉사의 피로를 풀고 새힘을 얻게 된다. 침묵기도로 영혼의 평온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함을 회복할 수 있는곳이 바로 '데이스프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편집자주

『유성준 교수가 새로 쓴 세이비어교회 이야기』를 새로 연재합니다. 이 책은 세이비어교회와 서번트 목회에 관한 연구들을 담고 있으며 세이비어교회의 실질적 사역 매뉴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가야 할 방향과 난관을 타개할 비전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금번시리즈를 게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유성준(한국 서번트리더쉽훈련원장) 목사님과 신앙과지성사에 감사드립니다.



펜데믹과 나의 믿음

강덕현_미시건한인연합감리교회

펜데믹의 시작

올해, 둘째인 막내가 킨더에 입학하기로 되어 있었기에 저에겐 미국에서의 지난 10년 집콕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만큼은 나만의 자유의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챕터를 상상하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했던 예상 과는 달리 팬데믹은 점점 더 심각해졌고, 전혀 상상하지 않던 삶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친한 교회 집사님의 어머니 장례예배에서 담임목사님의 말씀 중에 잊히지 않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사고로든 병이 들어서 이던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팬데믹 상황 또한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짜여 있는 것이라면,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린 것이라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위장된 축복

지난해,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 둘째가 프리스쿨을 다니고 있을 때, 아이 담임 선생님께서 Substitute Preschool Aide를 권해주시며 제 손을 잡고 사무실로 데려가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Daycare, Preschool 클래스 룸에 도움이 선생님으로 일이들어오는 날은 저에게는 피곤하지만 너무나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던 경험이 있었기에 미국의 학교 시스템이 낯설었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이 배움의 기회였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이 없는 날엔 둘째 아이를 데

리고 틈틈이 큰 애 초등학교 런치 맘 봉사를 하는 것 또한 저에게 큰 배움의 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일 년 동안의 경험을 쌓으며 팬데믹 시간 동안 저는 Substitute Teacher(대체교사) 허가증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신 큰 애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바로 전화를 주셨고, 저를 대체교사로 채용하시겠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팬데믹은 움츠렸던 날개를 펴며 정비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그렇게 대체교사



사진출처: goodreads.com

일을 시작하면서 여러 학교를 출근하게 되었고, 어느 날 하루는 3학년 반을 맡아 수 업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2월은 Black History month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The Story of Ruby Bridges'라는 한 흑인 소녀의 이야기를 읽어주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학인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절에 이 소녀는 백인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백인 부모들의 모욕과 지탄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에게 못되게 굴고 상처를 준 사람을 나 자신도 용서하기 힘든데, 이 어린 소녀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에게도 잔잔한 감동을 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공림학교에서는 종교나 정치적인 개인 의견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거나 이야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저는 조용히 아이들에게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친구를 위해 잠깐 10초 동안 기도하자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짧기만 10초 가는 시간 동안 우리 모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10초 후 제가 눈을 떴을 때 저는 계속 눈을 감고 기도하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 그 순간 저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만나게 될 하나님의 작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주께서 함께 저와 출근하시며 그분이 저를 통해 크고 작은 일을 하시도록 저의 영혼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 가운데 코로나

김경_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

Stay safe! Be healthy!

이젠 서로에게 인사가 되어버린 인삿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가 팬데믹을 겪고 있는지도 일년이라는 시간이 되어 갑니다. 시간이 흘러 언젠가는 '그래, 그땐 그랬어!'라고 이때를 회상하는 날이 곧 오겠지 요. 오리라 믿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직접 겪고 본 어지러운 이 시기를 나눠 보고 싶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집에서 나오지도, 또 보고 싶은 사람들을 편히 만날 수도 없게 하였습니다.

환자들을 보살피는 의료진들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마음가짐으로 비장함으로 무장하여야만 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마스크로 짓눌린 아름다운 상처가 그들의 희생 을 대변해 주었습니다.

6피트… 서로 간의 통제된 거리는 쉽게 들어가 식료품을 샀던 마트에서조차도 한명이 나오면 한명이 들어가는 번거로운 일상으로 변화 시켰고 아직도 이해가 잘 안가는 화장지 쟁탈전으로 인해 시시비비가 이곳저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에서 무료하게 보내는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통해 세계 곳곳의 상황을 보다 보게 된 짧은 영상에선 쇼핑카트에 화장지가 가득 찬 두 젊은 사람들이 힘없는 한 노인이 겨우 집은 마지막 한 개의 화장지까지도 빼앗는 영상을 보며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악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마스크 사용의 찬반론으로 이 또한 곳곳에서 많은 대립이 있었습니다. 마스크 와 손세정제는 동이 나고 그러다 보니 한참을 안 쓰고 처박아 두었던 재봉틀이 다시 세상의 빛을 보며 어두운 창고 밖으로 나와 열심히 뜀박질을 한 덕에 온 가족의 바이러스 방패역을 한 마스크를 만드는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요즘 최고의 선생이라는 너*Tube로 흐릿한 나의 기억을 끄집어 재봉틀 사용법을 다시 익히기도 했습니다.

격리되어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저처럼 많은 사람들이 너*Tube를 통해 새로운 것들을 직접 해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머리 스타일을 바꾸다가 망치기도 하고 요리를 배우거나 집 가꾸기, 화초 기르기 혹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자기 교육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세계 여러 곳 사람들의 위로와 희망을 담은 찬양을 많이 듣게 된 시간 이었습니다. Zoom이라는 영상을 통해 목소리로 악기로 하나님께 코로나 종식의 기원을 담아 정성을 다해 올려 드리는 영상들은 직접 참여하진 않았지만 함께 뜻을 모으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 년을 기도로 준비했던 찬양팀 합류도하게 되었습니다. 찬양의 은혜가 너무 커서 힘든 분들에게 제가 받은 은혜를 아주 조금이나마 나눠 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연 왜 이런 시기를 하나님께선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니 허락하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벌을 주시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 이런 귀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널리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에게 온 것이라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쓸고 닦고 정성을 쏟아부은 사업장을 정리해야만 하고 내 야 하는 고지서들은 내지 못해 독촉 받으며 실업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 땡볕에 몇 시간을 기다리고 가족들을 위해 로컬 커뮤니티에서 실행하는 Food Drive에서 음식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대기하는 모습을 보며 과연 우리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를 일찍이 준비시켜 주셔서 기적과도 같이 팬데믹 발효 두 달 전부터 경제적으로 힘드신 이웃 주민들을 위해 음식 나눠주기 를 매주 토요일 아침에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 나눔 실천이 이루어진 것은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침 일찍 시작한 봉사활동은 해가 거의 중천에 뜰 때까지 쉼 없이 진행됩니다. 기 쁨의 일이 되고 지치지 않게 해달라는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하여 모든 성도님의 얼굴 이 빨갛게 상기되고 나눠준 Latex 장갑이 다 찢어질 때까지 행여 너무 열심히 이웃을 챙기느라 우리가 탈진이라도 할까 시원한 물로 간식으로 챙겨 주시는 권사님들, 장로 님들… 무사히 사고 없이 마치고 나서야 그제서야 시원한 물로 목을 축입니다. 제가 주로 했던 일은 1가구가 몇 명인지 얼마큼 음식이 필요한지를 체크하는 일이었는데 생각나는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차들이 대기하고 있는 줄을 따라 양식 작 성을 돕거나 작성한 것을 확인합니다. 덕분에 영어를 못 하시는 라틴어계 분들을 위 해 YouTube를 통해 짧게 배운 스페인어가 제 몫을 단단히 했습니다. 나보다 더 힘들 거라는 것을 알기에 밝은 미소로 농담도 하며 그분들을 맞이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 로 반 이상을 가렸음에도 제 미소를 알아봐 주시고 함께 웃으며 대해 주신 분들이 감 사했습니다. 법칙상 교회라는 장소에서 나눔을 하고 있다 해서 종교적인 대화나 멘트 는 삼가하게 되어 있지만 정말 그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God bless you." 와 "God's love is free."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하루는 한 여성분이 2 개의 1회용 손 세정제 티슈를 주면서 이것밖에 줄 게 없어 미안하다는 말에 눈물을 왈 칵 쏟을 뻔했습니다. 모든 곳에서 동이 난 그 귀한 물건을 그 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셨 을까요? 저는 그 마음이 힘들 때 서로 나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라고 생각합니다. 봉사하며 나눔을 행하는 일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은 그 야말로 내가 원하는 내 기쁨, 내 만족을 더 생각했던 자만과 교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나눔이 진정한 나눔이라는 것을 더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런 힘든 시기에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위를 살피고 필 요가 필요한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 한 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 하나 작은 게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는 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텐데 제가 잊

고 있던 순간에도 저를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간증할 것입니다. 그 은 혜가 너무 커서 그 힘으로 저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는 이런 힘든 시기도 거뜬히 이겨냅니다.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이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신 분들은 이 시간에 만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냅시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매일 함께 걷는 '기쁨의 언덕으로' 나의 일기, 묵상이 아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쁨의 언덕으로' 한/영 이중언어로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에 한 장 성경읽기, 말씀묵상, 저널링,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기쁨의 언덕으로'

한 권에 \$3.5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 말씀이신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기쁨의 언덕으로'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개척교회는 물론 캠퍼스, 군대, 교도소로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권 을 후원하면 매월 \$35 per month

20권 매월 \$70 per month

30권 매월 \$105 per month

매월 \$ 175 per month 100권 매월 \$350 per month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 운동 Email: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50권

문의: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 Email: wwjd21st@gmail.com

https://go.missionfund.org/tphbooks

말씀묵상 길라잡이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 후원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기쁨의 언덕으로'는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말씀묵상집 입니다

이 묵상집은 이민자들의 영성계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시작했고, 이민교회를 위한 이중언어 말씀묵상 길라잡이로 매달 발행되고 있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를 위해 목회자 기획위원, 평신도 편집위원, 영어번역위원 등이 모두 자원하여 봉사하며,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기쁨의 언덕으로'를 섬기는 집필팀 워크샵, 평신도 편집위원 수련회, 개체교회를 섬기는 QT 컨퍼런스, 기획위원, 편집위원, 번역위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후원하길 원합니다

매월 □\$ 10 □\$ 20 □\$ 30 □\$ 50 □\$ 100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함께 후원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 운동

Email: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Email: wwjd21st@gmail.com

https://go.missionfund.org/tphministry



66 미 전역에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99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은 모든 한인연합감리교회와 함께 합니다!"

지금 교회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kumcdevotion@gmail.com 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Alabama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주님의교회(유혁재, 334-279-1935) 버밍램한인연합감리교회(지홍일, 205-957-0595) 프렛빌한인교회(홍성국, 334-221-9392) 헌스빌감리교회(256-489-1158)

· Alaska (알래스카 주)

앵커리지한인연합감리교회(금원재, 907-346-2886)

• Arizona (애리조나 주)

아리조나연합감리교회(이기용, 480-423-7777) 투산제일연합감리교회(고은영, 520-760-9749)

• Arkansas (아칸소 주)

소망연합감리교회(조선욱, 501-308-4127) 아칸사한인연합감리교회(정형권, 479-263-5434)

• California (캘리포니아 주)

가나안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현, 831-333-6857) 가든그로브한인연합감리교회(박용삼, 714-534-6378)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이석부, 310-973-5106) 나성복음연합감리교회(김호용, 323-641-0691)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조승홍, 213-747-4209) 남가주주님의교회(김낙인, 626-965-9191) 노스리지연합감리교회(최요셉, 818-886-1555) 드림교회(정영희, 626-793-0880) 라구나힐스한인연합감리교회(림학춘. 949-380-7777)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김도민, 714-226-0300) 로스앤젤레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창민, 310-645-3699) 로스휄리즈연합감리교회(신병옥, 323-382-0691) 밴나이연합감리교회(안정섭, 818-785-3256) <u>밸리한</u>이연합감리교회(류재덕, 818-366-0089) 버클리새교회(김종식, 510-526-7346) 베델연합감리교회(한인희, 408-244-8710)

사랑나무교회(이상호, 818-346-1617) 산타마리아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남기성, 805-922-1004)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권혁인, 408-295-4161) 상항한국인연합감리교회(송계영, 415-759-1005)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정상용, 858-279-9191) 시온연합감리교회(오경환, 310-834-5504) 어바인드림교회(949-786-8354) 언약교회(이상호, 909-622-8815) 영화연합감리교회(강현철, 213-413-4154) 열린교회(김규현, 510-652-4155) 예수사랑교회(이강원, 408-746-9553) 오클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정현섭, 510-451-9076)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남재헌, 805-485-0100) 온타리오 감리교회(전재홍, 909-986-6641) 유바사랑의교회(이진식, 925 279-1214) 월셔연합감리교회(구진모, 323-931-9133) 은강연합감리교회(홍종걸, 714-870-9991) 은혜연합감리교회(한진호, 818-241-9352)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신상만, 805-302-1706) 좋은연합감리교회(김두식, 916-987-9191) 주사랑연합감리교회(김태호, 626-575-9191) 카르디아연합감리교회(김범수, 310-473-1285)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영, 805-389-3161) 크레센타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김용근, 818-541-0306) 태평양연합감리교회(이도원, 323-255-3734) 토랜스한인연합감리교회(강현중, 213-235-7659) 콘트라코스타한인연합감리교회(김영래, 925-935-0191) 후레스노한인연합감리교회(김규현, 559-299-0240) 희망교회(김정민/가한나, 858-354-0009) 히스페리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병렬)

• Colorado (콜로라도 주)

그리스도중앙연합감리교회(주활, 303-369-0600) 덴버연합감리교회(이선영, 720-529-5757)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전병욱, 303-753-8823) 푸에블로한인교회(최윤선, 719-544-5739) 한미연합감리교회(이지성, 719-570-0300)

· Connecticut (코네티컷 주)

뉴헤이븐연합감리교회(최영, 203-387-1579) 스탬포드한인연합감리교회(신승호, 203-353-0488) 커네티컷한인중앙교회(김정환, 860-365-0233) 하트포드한인교회(최우돈, 860-953-0141)

· Delaware (델라웨어 주)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송종남, 302-235-5735)

• Florida (플로리다 주)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이철구, 954-739-8581) 올랜도한인연합감리교회(김호진, 407-801-2731) 탈라하시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권, 850-228-1414) 탬파한인연합감리교회(한명훈, 813-907-5815) 헤르난도한인교회(윤대섭, 352-726-7245)

Georgia (조지아 주)

노크로스한인교회(박희철, 678-978-2099) 뉴난한인감리교회(남성원, 770-683-9381) 라그레인지한인연합감리교회(남정월, 706-407-8296) 서바나한인연합감리교회(복지원, 912-355-8225)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송희섭, 770-495-8020) 아틀란타베다니한인감리교회(남궁전, 678-546-5700) 아틀란타한인교회(조영진, 678-381-1004) 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네준협, 770-321-0020) 존스크릭한인연합감리교회(서정일, 770-497-8215) 트리니티 한인교회(검경곤, 678-431-7924) 해밀턴밀한인교회(정찬응, 770-271-4255) 하인스빌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길, 912-368-4875)

• Hawaii (하와이 주)

갈보리연합감리교회(남규우, 808-386-9672) 감람연합감리교회(이영성, 808-956-1004) 고리스도연합감리교회(한의준, 808-536-7244) 베다니연합감리교회(원홍연, 808-626-7434) 아름다운교회(오대현, 808-343-6839) 아이에아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현, 808-488-3018) 올리브연합감리교회(김배선, 808-622-1717)

• Illinois (일리노이 주)

갈릴리연합감리교회(엄모성, 847-998-4610)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기, 708-799-0001) 네이퍼빌한인연합감리교회(최기환, 630-904-9191) 마콤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일, 309-768-2663) 비젼교회(우민혁, 847-949-9705) 올랜드팍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이동근, 708-403-2007) 예수사랑감리교회(오치용, 217-419-5132)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김태준, 847-534-2826) 샘물연합감리교회(박미숙, 847-712-0413) 시카고예수사랑감리교회(조선형, 847-372-6057)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김광태, 847-541-9538) 중앙연합감리교회(홍진호, 847-797-1144) 하이드팍한인교회(이우민, 773-643-2144)

· Indiana (인디애나 주)

블루밍톤한인교회(안성용, 812-331-2080) 인디아나폴리스제일연합감리교회(이기채, 317-894-4456) 퍼듀제자교회(이종민, 217-417-2288)

• lowa (아이오와 주)

디모인한인연합감리교회(이병훈, 515-261-0600) 아이오와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최군임, 319-337-8397) 에임스사랑의교회(이병훈, 515-233-1063) 콰드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조항백, 563-359-4227)

• Kansas (캔자스 주)

위치타은혜연합감리교회(임일호, 316-239-6883) 정션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문주현, 785-762-4344)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송명철, 913-648-4277) 피츠버그사랑연합감리교회(정룡재, 620-231-2540)

• Kentucky(켄터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상순, 270-439-3297)

• Louisiana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즈한인연합감리교회(이동섭, 504-455-7883) 리스빌연합감리교회(나길석, 337-537-5977)

• Maine (메인 주)

무지개연합감리교회(조태섭, 207-774-1617)

· Maryland (메릴랜드 주)

늘사랑연합감리교회(박종희, 443-763-4566) 베다니한인교회(박대성, 410-979-0691) 성령의불꽃교회(유재유, 703-276-8018) 솔즈베리한인연합감리교회(정남성, 410-860-0090) 에텐연합감리교회(신요섭, 667-206-4162) 워싱톤감리교회(이승우, 301-309-6856) 하늘비전교회(장재웅, 410-200-3859)

• Massachusetts (매사추세츠 주)

보스톤연합감리교회(안신형, 781-393-0004) 북부보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최진용, 978-470-0621) 비젼교회(이충호, 617-864-1123) 성요한한인연합감리교회(조상연, 781-861-7799) 안디옥한인연합감리교회(강명석, 978-534-3394)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태, 508-799-4488)

• Michigan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제일중앙연합감리교회(김대기, 248-545-5554)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김응용, 248-879-2240)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TroyHope(Anna Moon, 248-879-2240) 앤아버한인연합감리교회(조현준, 734-662-0660)

• Minnesota (미네소타 주)

멘케이토한인연합감리교회(유승찬, 507-382-6070) 미네소타한인복음연합감리교회(윤국진, 952-938-2142) 미네소타한인연합감리교회(백성범, 651-633-2434) 은혜한인연합감리교회(백형두, 612-859-5882)

• Missouri(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명균, 314-426-5683)

• Nevada (네바다 주)

겨자씨한알교회(최영완, 702-595-3678) 라스베가스한인연합감리교회(라운진, 702-434-9915)

• New Hampshire (뉴햄프셔 주)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한상신, 603-430-2929)

• New Jersey(뉴저지 주)

가득한교회(이강, 908-464-1807)
알보리연합감리교회(왕태건, 732-613-4930)
고레이스벧엘교회(장학범, 201-242-8866)
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박태열, 609-965-1222)
뉴저지연합교회(고한승, 201-816-1284~5)
뉴저지연합교회(고한승, 201-816-1284~5)
라저지연합교회(임희영, 201-939-9726)
리빙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임희영, 201-939-9726)
리지우드연합감리교회-한어회중(안성훈 914-548-1685)
만모스은혜연합감리교회-한어회중(안성훈 914-548-1685)
만모스은혜연합감리교회(청호석, 732-542-4321)
모리스타운한인교회(최상훈, 973-252-5252)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백승린, 973-694-3880)
아콜라연합감리교회(안명훈, 201-843-7970)
아펜젤라기념내리연합감리교회(조민호, 973-256-6831)
제자교회(이영기, 201-394-8446)

주남의은혜교회(최준호, 973-563-5365) 체리힐제일교회(김일영, 856-424-9686) 코너스톤교회(정희섭, 201-767-1172) 티넥한인연합감리교회(이재덕)

New Mexico(뉴멕시코 주)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김기천, 505-341-0205)

• New York(뉴욕 주)

그리스도한인연합감리교회(정창훈, 347-233-1117) 뉴드림교회(김남석, 516-504-5612) 뉴욕감리교회(강원근, 516-681-0164) 뉴욕그레잇넥교회(양민석, 917-326-1723) 뉴욕남산교회(이요섭, 718-680-0328) 뉴욕만백성한인연합감리교회(이종범, 718-701-4953) 뉴욕반석교회(김동규. 516-997-8620) 뉴욕베델교회(진세관) 뉴욕성서교회(김종일, 631-243-5683) 뉴욕주나목교회(문정웅, 718-229-4024) 뉴욕한인교회(최현덕, 212-662-1422) 로체스터제일교회(이진국, 585-662-5560) 로체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동기, 585-872-0188)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김재현) 모닝사이드연합감리교회(유명철) 메트로폴리탄한인연합감리교회(김진우, 212-758-1040) 미드허드슨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태) 버팔로한인연합감리교회(국재현, 716-748-5886) 부르클린한인연합감리교회 스태튼아일랜드한인교회(정광원, 718-984-3333) 시라큐스소망연합감리교회(양현주) 아스토리아한인교회(진성인, 718-626-1278) 우리감리교회(김동현, 347-935-9348) 올바니한인연합감리교회(유화성, 518-387-9078) 웨체스터중앙교회(김철식, 914-948-8835) 퀸즈중앙감리교회(이요섭, 718-359-8388) 후러싱제일교회(김정호, 718-939-8599)

• North Carolina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스보로한인연합감리교회(서준석, 336-852-8535) 아가페한인연합감리교회(엄성일, 919-469-1514)

Ohio (오하이오 주)

맨스휠드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9) 데이튼한인연합교회(유준식, 937-294-2018) 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이미란, 614-451-2085) 새생명연합감리교회(전기상, 248-659-7882) 아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근상, 614-764-8960) 영스타운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석, 330-743-7020) 캔톤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8) 콜럼버스한인연합감리교회(장이준, 614-882-5819) 한마당연합감리교회(440-845-1728) 한인매디슨빌연합감리교회(우용철, 513-271-1434)

• Oklahoma (오클라호마 주)

새빛연합감리교회(정기영, 580-536-6884) 오클라호마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엄준노, 405-672-5062) 털사한인연합감리교회(손태원, 918-622-0045) 평강한인연합감리교회(김관영, 580-237-6611)

Oregon (오리건 주)

오레곤우리연합감리교회(박은수, 503-641-7887) 포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오광석, 503-684-7070)

• Pennsylvania (펜실베이니아 주)

고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신, 215 -280-5768) 베들레헴한인연합감리교회(김중혁, 610-867-4437) 벤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차명훈, 215-639-3120) 소망한인연합감리교회(717-731-9190) 인디아나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덕, 724-465-2015) 필라델피아제일연합감리교회(홍정균, 215-542-5686) 필라등대교회(조병우, 215-884-5251)

• Rhode Island(로드아일랜드 주)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선우혁, 401-739-8439)

South Carolina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고린빌연합감리교회(신규석, 864-567-3633) 찰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배연택, 843-797-8199) 콜럼비이한인연한감리교회(나옹철, 803-447-6186)

Tennessee(테네시 주)

내쉬빌한인교회(강희준, 615-373-0880)

Texas (텍사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건, 214-901-1116) 달라스북부중앙연합감리교회(조낙훈, 469-235-8041) 달라스제일연합감리교회(박광배, 972-231-0057)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이성철, 972-258-0991) 동산연합감리교회(유화청, 713-722-9553) 동화연합감리교회(박경원) 러박연합감리교회(김다니엘, 316-218-8498) 버먼트제일연합감리교회(박청수, 409-554-0550) 성누가연합감리교회(소정일, 254-526-3993)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배혁, 210-341-8706) 우리만나연합감리교회(오요한, 817-657-4559) 월리암스메모리얼연합감리교회-한인회중(이병설, 903-794-2882) 웨슬리연합감리교회(주요한, 972-276-2098) 웨이코한인연합감리교회(이진희, 254-757-2621)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전성철, 214-238-2003) 킬린우리연합감리교회(전대우, 254-245-8029) 휴스턴제일연합감리교회(정용석, 713-462-0708) St. Petes UMC-Katy 한어회중(김테이빗 281-541-6286)

Vermont (버몬트 주)

버먼트한미연합감리교회(배상철, 802-876-7622)

· Virginia (버지니아 주)

가나연합감리교회(박주섭, 703-339-8899) 버지니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권홍, 757-484-5988) 새빛교회(김은관, 703-385-3390) 성가연합감리교회(최윤석, 757-877-2270) 알링턴한인교회(류영성, 703-489-4596) 애쉬번한인교회(강현식, 703-336-3679) 엠마오연합감리교회(김철기, 804-272-5831) 와성톤사귐의교회(김영봉, 703-939-0559) 와성톤제일교회(정성호, 571-643-0800/0900) 와성톤한인교회(김영훈, 703-448-1131)

• Washington (워싱턴 주)

시애틀연합감리교회(박세용, 206-406-6499) 좋은씨앗교회(정요셉, 253-363-3169) 타코마제일연합감리교회(박용규, 253-589-0882)

• Washington D.C(워싱턴 D.C)

알파커뮤니티한인교회(202-680-2394)

• West Virginia (웨스트버지니아 주)

헌팅톤제일한인연합감리교회(최연, 304-522-0357)

• Wisconsin(위스콘신 주)

메디슨한인연합감리교회(황선중, 973-525-9584) 애플톤시온연합감리교회(정희권, 920-687-9191) 참아름다운연합감리교회(김성근, 414-425-2530) 케노사한인연합감리교회(이대규, 262-658-1131)

· GAUM(괌)

괌한인선교교회(김택수)

Russia(러시아)

모스크바연합감리교회(조수진, 011-8-963-617-8439)

성경진도표

2022/01			2022/02			2022/03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창세기	1	01	창세기	27	01	출애굽기	1-2
02		주일	02		28	02	Ash Wed.	3
03		2	03		29	03		4
04		3	04		30	04		5
05		4	05		31	05		6
06		5	06		주일	06		주일
07		6	07		32	07		7-8
08		7	08		33	08		9-10
09		주일	09		34	09		11-12
10		8	10		35	10		13
11		9	11		36	11		14
12		10	12		37	12		15
13		11	13		주일	13		주일
14		12	14		38	14		16
15		13	15		39	15		17-18
16		주일	16		40	16		19-20
17		14	17		41	17		21-22
18		15	18		42	18		23-24
19		16	19		43	19		25
20		17	20		주일	20		주일
21		18	21		44	21		26
22		19	22		45	22		27
23		주일	23		46	23		28
24		20	24		47	24		29
25		21	25		48	25		30-31
26		22	26		49	26		32
27		23	27		주일	27		주일
28		24	28		50	28		33-34
29		25				29		35-36
30		주일				30		37-38
31		26				31		39-40

2022/04			2022/05			2022/06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마가복음	1	01	시편[-]]	주일	01	레위기	1
02		2-3	02		1-2	02		2
03		주일	03		3-5	03		3
04		4-5	04		6-7	04		4
05		6	05		8-9	05		주일
06		7	06		10-12	06		5
07		8	07		13-16	07		6
08		9	08		주일	08		7
09		10	09		17-18	09		8
10	고난주일	주일	10		19-21	10		9
11		11	11		22-24	11		10
12		12	12		25-27	12		주일
13		13	13		28-30	13		11
14		14	14		31-33	14		12-13
15		15:1-41	15		주일	15		14
16		15:42-27	16		34-35	16		15
17	부활주일	주일	17		36-37	17		16-17
18		16	18		38-39	18		18
19	고린도전서	1	19		40-41	19		주일
20		2-3	20		42-44	20		19
21		4	21		45-48	21		20
22		5-6	22		주일	22		21
23		7	23		49-50	23		22
24		주일	24		51-53	24		23
25		8-9	25		54-56	25		24
26		10-11	26		57-60	26		주일
27		12	27		61-64	27		25
28		13-14	28		65-67	28		26
29		15	29		주일	29		27
30		16	30		68-69	30		4
			31		70-72			

2022/07			2022/08			2022/09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시편III-V	73-75	01	민수기	1-2	01	로마서	1
02		76-77	02		3-4	02		2
03		주일	03		5-6	03		3
04		78	04		7	04		주일
05		79-81	05		8-9	05		4
06		82-83	06		10	06		5
07		84-87	07		주일	07		6
08		88-89	08		11-12	08		7
09		90-91	09		13-14	09		8
10		주일	10		15	10		9
11		92-97	11		16	11		주일
12		98-102	12		17-18	12		10
13		103-104	13		19	13		11
14		105	14		주일	14		12
15		106	15		20	15		13
16		107-108	16		21	16		14
17		주일	17		22	17		15
18		109-112	18		23-24	18		주일
19		113-118	19		25	19		16
20		119:1-56	20		26	20	고린도후서	1-2
21		119:57-112	21		주일	21		3
22		119:113-176	22		27	22		4:1-5:10
23		120-125	23		28	23		5:11-7:1
24		주일	24		29	24		7:2-16
25		126-132	25		30	25		주일
26		133-137	26		31	26		8-9
27		138-140	27		32	27		10
28		141-143	28		주일	28		11
29		144-146	29		33	29		12
30		147-150	30		34-35	30		13
31		주일	31		36			

2022/10			2022/11			2022/12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신명기	1	01	여호수아	1	01	마태복음	3-4
02		주일	02		2	02		5
03		2	03		3	03		6
04		3	04		4	04		주일
05		4	05		5	05		7
06		5-6	06		주일	06		8
07		7-8	07		6	07		9
08		9	08		7	08		10
09		주일	09		8	09		11
10		10-11	10		9	10		12
11		12	11		10	11		주일
12		13-14	12		11	12		13
13		15	13		주일	13		14
14		16-17	14		12	14		15
15		18	15		13	15		16
16		주일	16		14	16		17
17		19-20	17		15	17		18
18		21	18		16-17	18		주일
19		22	19		18	19		19
20		23	20		주일	20		20
21		24-25	21		19	21		21
22		26	22		20	22		22
23		주일	23		21	23		1
24		27	24		22	24		2
25		28	25		23	25	성탄절	주일
26		29	26		24	26		23
27		30	27		주일	27		24
28		31	28	요엘	1	28		25
29		32	29		2	29		26
30		주일	30		3	30		27
31		33-34				31		28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

Nehemiah Project P.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이메일
 kumcdevotion@gmail.com

 ❖ 발행인
 류재덕(연합감리교회 한인 총회장)

 ❖ 운영위원장
 이성현(한인총회 느헤미야 운동)

 ❖ 편집인
 류계환(한인총회 선교총무)

❖ 편집기획
 ☆ 영어번역
 김종완(느헤미야 운동)
 감영실, 박길재, 양훈, 엄윤학

❖ 영어번역 김영실, 박길재, 양훈, 엄윤호, 홍사라, Ester Kim
 ❖ 목회자기획위원 강현중, 김진우, 박효연, 방승호, 배연택, 배혁, 서준석

유혁재, 이보영, 조기현, 조선형, 차세진

❖ 평신도 편집위원
 ☆ 편집문의
 ☆ 변집문의
 kumcdevotion@gmail.com

❖ 배송/결제문의 salesusa@hosanna.net / 562-944-5344(호산나미디어)

함께 하신 분들

❖ 언덕 위의 소리(Voices from The Hill) / 소그룹 모임 교재 서준석 목사 (그린스보로한인연합감리교회, NC)

❖ 주일 칼럼

권혁인 목사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CA) 윤국진 목사 (미네소타 복음연합감리교회, MN) 최헌 목사 (렉싱턴한인교회- 올네이션스연합감리교회, KY) 황승일 목사 (우드랜드힐스연합감리교회, CA)

- The ESV® Bible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copyright® 2001 by Crossway, a publishing ministry of Good News Publishers. ESV® Text Edition: 2011. The ESV® text has been reproduced in cooperation with and by permission of Good News Publishers. Unauthorized reproduction of this publication is prohibited. All rights reserved.
 -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is adapted from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copyright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All rights reserved
- Illustrations by Swiss artist and storyteller Annie Vallotton, as taken from the Good News Translation@1976,1992 American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 본서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개정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서 허락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 Copyright by HOSANNA & OneBody
- 구독변경 및 신청문의 salesusa@hosanna.net

